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모유수유 경험에서 나타난 학습에 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조 혜 정

모유수유 경험에서 나타난 학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한 숭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조 혜 정

조혜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모유수유모의 경험과 학습을 이해하고, 평생교육의 렌즈로 포착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의미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모의 경험 학습과 어머니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과 학습의 이중 구조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 대상으로, 개인 경험 차원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한 모유수유 수기집(초보엄마들의 좌충우돌 수유기)을, 집단 경험 차원에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카페N), 그리고 조직 경험 차원에서는 전지구적 NGO인 라레체리그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화된 연구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적, 집단적, 조직적 차원에서 살펴본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개인적, 집단적, 조직차원에서 모유수유 경험이 함의하는 학습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개인적, 집단적, 조직차원에서 어머니의 경험과 학습은 평생교육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몸으로 겪는 임신과 출산, 수유라는 순차적이고도 생물학적 경험은 '개체'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그리고, 획일적인 자가복제가 아닌 남들과 사뭇 다른, 마치 돌연변이와도 같은 경험은 새로운 지식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들의 목소리는 넋두리와 같은 '중구난방(衆口難防)'에서부터, 모유수유를 하자는 개별화된 외침인 '이구동성(異口同聲)', 그리고 젖먹이는 어머니들을 돕기 위해 길을 만드는 조직적 노력과 그 길을 함께 걷는 어머니들의 '동행동행(同行同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연구사례에 등장하는 모유수유모들은 정보와 응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동료맘들과 선배맘들에게 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 그 소중함을 알기에,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응원하고자 했다. 아기와 함께, 자신이 얻은 정보를 자신의 몸

으로 검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과 자신의 아기만을 위해 이미 만들어진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은 현 상황을 수용하기도 하도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내재된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라레체리그의 예에서 보듯이, 어머니 한 사람의 경험과 학습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Marian Tompson의 제안으로 시작된 젖 먹이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전지구적인 NGO로 성장한 것처럼 말이다. 라레체리그는 어머니들뿐 아니라 의료전문가들과도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즉, 학습과정을 통해 탄생했고, 성장한 라레체리그는 자체 경험적 지식을 다른 어머니와 아기, 의료 전문가에게 알리고, 라레체리그의 길로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도 이를 그 자신의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여느 어머니들처럼 넋두리와 개별화된 외침으로 끝나는 않고 '라레체리그'라는 조직을 탄생시키고 이것이 전지구적인 NGO로 성장하게 한 힘은 창립자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사명감과 학습이다. 이러한 라레체리그의 존재는 서구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성인교육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가치가 기독교였다는 Jarvis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또한, 평생교육의 관점 간의 갈등 중 하나인 개인과 사회의 변화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 개인의 변화가 사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라레체리그도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성인교육이 평생학습시장에 통합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위기 상황은 평생교육의 개념의 쟁송지대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자 했던 한 어머니의 개인적 노력은 '나'를 뛰어넘어 '우리'의 노력이 되었고, 이는 사회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

한 노력은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아이와 함께 걸어 갈 길을 만드는 라레체리그,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의 노력은 '사랑하기 좀 더 쉬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산고로 기억될 것이다.

주요어 : 모유수유모, 경험, 학습, 지식, 경험학습, 라레체리그
학 번 : 2004-23722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목적 및 문제 ····· 2
3. 연구대상 및 방법 ····· 3
1) 개인 경험 차원 ····· 6
2) 집단 경험 차원 ····· 8
3) 조직 경험 차원 ····· 11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15
1. 경험, 학습 그리고 지식 ····· 15
2. 수유경험 ····· 19

Ⅲ. 중구난방(衆口難防) ····· 22
1. 알려주세요. ····· 24
1) 혹시 이런 적 있는 맘들 계십니까? ····· 24
2) 이것이 궁금해요. ····· 26
3)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4
4) 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 41
2. 함께 해요. ····· 43
1) 응원해주세요. ····· 43
2) 응원합니다. ····· 47
3. 소결 ····· 50

Ⅳ. 이구동성(異口同聲) ····· 53
1. 환상과 자만이 깨짐 ····· 54

2. 정보 부족 vs 정보 과잉 ····· 57
1)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 ····· 57
2)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 ····· 59
3. 신뢰와 믿음 그리고 자기확신 ····· 60
1)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선별 ····· 60
2) 믿음 ····· 64
3) 검증을 통한 확신 ····· 66
4.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있고 보람찬 모유수유 ····· 68
1) 인고의 시간 없이 줄 수 없는 모유 ····· 68
2) 엄마젖을 먹어주는 고마운 아기 ····· 70
3) 끊임없는 대화로 함께 하는 여정 ····· 71
5. 소결 ····· 80

Ⅴ. 동행동행(同行同幸) ····· 83
1. 길을 만드는 라레체리그(La Leche League) ····· 83
2. 함께 그 길을 걷는 그녀들의 이야기, 라레체리그 서울 92
3. 소결 ····· 103

Ⅵ. 논의 ····· 112

Ⅶ. 결론 및 제언 ····· 118
1. 결론 ····· 118
2. 제언 ····· 120

참고문헌 ····· 123
ABSTACT ····· 131

표 목 차

<표1> 연구 사례 구분 ····· 4
<표2> ‘초보엄마들의 좌충우돌 수유기’ 본문 구성 ····· 7
<표3> 2014년 상반기 ‘카페N’ 활동 내역 ····· 9
<표4> ‘카페N’ 게시판별 모유수유 관련 글 게시현황 ····· 10
<표5> 라레체리그 서울 제보자 인적 사항 ····· 13
<표6> 라레체리그 서울 시리즈 미팅 참여 관찰 일정 ····· 14

그 림 목 차

[그림1] 라레체리그 학습체계 ····· 91

Ⅰ. 서론

1. 문제제기

뱃속에 있던 아이가 첫 울음을 터트리고 세상에 나오는 이 경이로운 생명 탄생의 순간부터 아기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냄새로 찾는 반면에, 어머니는 학습을 통해 어머니로서 하는 활동과 일, 즉 마더링(mothering)을 수행한다(한숭희, 2009: 93). 특히, 출산 이후 쇠약해진 어머니는 미처 자신의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젖먹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젖 물리는 일조차도 노력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특히 어머니의 젖 분비가 충분하지 않고 아기가 엄마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할 경우 위기적 상황[1]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20~223). "모유수유의 성공은 출산 후 3~7일간 아기에게 모유를 성공적으로 먹이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이 시기는 모유육아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1b: 21).

엄마젖을 먹인다는 것은 아기에게 일상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전생애에 감정적·육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Diane Wiessinger et al, 2010: 5). 또한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건강[2]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아기가 엄마젖을 먹고 자라지 못할 경우, 아동은 모유의 보호인자의 결핍으로 질병발생률 및 영아기·유아기 초기의 사망률 증가의 위험[3]이 있다. 또한, 모유수유

1) 예를 들어, 아이가 마실 수 없는 정도로 모유가 많다면 "유방은 언제나 답답하고 잔유감이 있는데 결국 유관의 폐쇄를 되풀이하므로 유방이나 유두에 아픔이 있고 유선염을 호발"하며(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23), 모유 부족으로 분유 보충을 할 경우 유즙분비에 필요한 젖 빠는 자극이 그 만큼 줄어들어 모유량이 감소하고 이전보다 분유 보충이 늘어나게 된다.

2) 아기가 젖을 빨면 어머니의 산후 자궁수축에 좋으며, 모유수유시 많은 열량이 소모되어 어머니의 체중감소에도 도움이 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1b: 4). "모유수유는 배란과 생리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어(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1a: 213)" 아이 터울을 늘리거나 특히 여성호르몬 의존성 질환인 자궁내막증 호전에 도움이 된다(출처: 김정훈의 불임 및 생식내분비교실).

를 하지 않는 여성은 유방암과 일부 난소암, 생애 후기에 둔부골절 및 임신기간 동안 몸에서 수유를 위해 축적한 지방이 사용되지 못하고 남게 되어 후기 비만이 될 위험이 증가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1a: 77~78).

그렇지만, 자연이 세상에 나온 아기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이자, 어머니의 몸이 만들어낸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모유수유 중 어려움을 겪는데(권인수 외, 2006: 500), 많은 어머니들이 육아 부담과 수유 중 직면하는 문제와 불편감 때문에 모유수유를 중단한다(장군자 외, 2008: 173). 그러나, 일부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인내', 그리고 '주변의 지지와 지원', '시기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러한 모유수유 중단의 위기[4]를 극복하기도 한다(김미종 외, 2010). 이런 점에서, 모유수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위험 상황은 모유수유 성공의 "가능성들이 끝나버린 막힌 영역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들이 시작되는 진정한 한계"로서의 '한계상황(limit-situation)'이라고 할 수 있다(Freire, 2000: 99).

2. 연구목적 및 문제

연구자는 출산 후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를 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어머니들의 경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

---

3) 김신정과 양숙자(1997: 478)는 영아사망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영아사망율을 낮추는데 모유수유가 기여하고 있음이 발표되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인공수유로 인한 사망위험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WHO 미주지역 사무처에서(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공수유아의 경우 위장관계 감염으로 인한 사망위험비가 모유수유아에 비해 3-5배인것으로 발표되었으며(Cunningham, 1991), 모유수유아에 비해 원인불명의 돌연사에 대한 위험비가 3.7배인 것으로 나타나 인공수유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 SID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amus et al., 1988)."

4) 김미종 외 2인(2010)은 '성공적 모유 수유모들이 경험한 모유수유 중단위험 요인'을 ① 모유량 조절장애, ② 유방 및 유두관리 장애, ③ 어머니측 장애, ④ 아기측 장애, ⑤ 어머니-아기 양측 장애, ⑥ 환경적 장애 6가지로 분류하였다.

해 어머니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특히 개별 어머니들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학습을 통해 어떻게 그녀들의 경험이 재구성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녀들의 경험과 학습 속에서 나타나는 평생교육 현상을 포착하여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고, 이것이 지니는 평생교육학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집단적, 조직적 차원에서 살펴본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개인적, 집단적, 조직차원에서의 모유수유 경험이 함의하는 학습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개인적, 집단적, 조직차원에서의 어머니의 경험과 학습은 평생교육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3. 연구대상 및 방법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습과 교육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복수의 모유수유 모의 경험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 조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사례를 각각 선정하고 모유수유 경험의 특징과 이러한 경험이 함의하는 학습의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1> 연구 사례 구분

구분	연구대상	비고
개인	초보엄마들의 좌충우돌 수유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모유수유 수기 공모전 수상작과 결선 진출작 모음집
집단	카페 N (지역 육아 정보 커뮤니티)	네이버 선정 대표카페
조직	라레체리그[5]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젖먹이는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전지구적 NGO

위 3가지 사례를 통해, 연구자는 모유수유 경험에서 나타난 학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삶이 학습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삶이 반영된 글을 통해 평생학습연구의 기초가 되는 학습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강대중, 2009: 210). 여성의 어머니됨에 있어서, 모유수유 경험은 그녀의 생애사의 한 부분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 특히, 개인 경험 차원에서 선정한 수기집은 필자의 삶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기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어머니 자신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 해석적 과정을 거쳐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을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경험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집단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이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는 것도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표출하기도 하고,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집단 경험 차원에서는 특정 지역에 기반한 육아 정보 커뮤니티인 카페N을, 조직 경험 차원에서는 '라레체리그'라는 전지구적 NGO을 살펴봄으로써, 모유수유모의 경험에 나

5) 'la leche'는 '젖'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영어로는 'lah LAY-chay'로 발음된다(Diane Wiessinger et al, 2010: xx). 하지만, 본 연구의 참고문헌에 등장하는 기존 한국어 자료에서 모두 'la leche'를 '라 레체'로 일관되게 표기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같이 '라레체'로 표기하였다.

타난 학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엄마젖을 먹이던 중 어려움에 처했고, 당시 연구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이자 '초보엄마들의 좌충우돌 수유기'의 감수자인 유혜영 센터장을 통해 젖 먹이는 어머니들의 전지구적 NGO가 있다는 사실과 그 조직의 이름이 '라레체리그(La Leche League)'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라레체리그 홈페이지에 소개된 연혁을 통해, 1956년 모유수유를 생각하는 7명의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이 조직이 아기에게 엄마젖을 먹이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support)[6] 및 응원(encouragement)을 하는 NGO로 성장한 역사적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유수유모의 경험에 있어서 마치 돌연변이 양상과도 같은 것으로, 모든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한계상황에서 어머니들이 맺은 열매 중의 하나였다.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전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NGO로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젖 먹이는(먹였던) 어머니로서 한계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을 일대일로 도울 뿐 아니라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유수유를 지지· 장려하는 순수 민간단체인 라레체리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녀들과의 "대화의 기록(조용환, 1999: 131)"에 있어서, 모유수유중인 연구자의 상황은 중층적인 해석의 과정의 배경이 된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내용분석에서 사용되는 전략으로 강대중(2009: 216)이 제시한 "깊이 있는 반복적인 출처자료 읽기(indepth and repeated readings)와 읽은 결과에 대한 부단한 쓰기(constant writing)"라는 '자기반성적인(self-reflective)'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모유수유 경험이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

6) 라레체리그의 페이스북에 설명된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작성자: La Leche League Alumnae Association, 작성일: 2014. 05.19).
-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기(Listiening without judgement)
- 조언이 아니라 정보 제공하기(Offering information, not advice)
- 개별 어머니들은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Recognizing each mom knows her life situation and her baby best)
-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임파워하기(Empowering women to discover their own strengths)

또한,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개인, 집단, 조직 차원의 각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와 문헌들을 조사했다. 또한, 본 연구자는 회원의 자격으로 연구 대상인 카페N과 라레체리그에 대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특히, 조직차원의 연구대상인 라레체리그 서울의 경우, 시리즈 미팅(series meeting)[7]에 참석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개인과 집단, 조직 사례의 보다 자세한 설명과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개인 경험 차원

개인 경험 차원에서는 2012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주최한 모유수유 수기 공모전[8] 우수작 모음집인 '초보엄마들의 좌충우돌 수유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수기집에는 어머니 39명의 글이 수록되어있으며, 그녀들의 수기는 '엄마와 아기와의 사랑의 교감', '모유량은 충분한가요', '이른둥이도 튼튼하게 키우는 엄마젖', '젖몸살이 왔어요', '유두혼동이 왔어요', '함몰유두도 가능해요', '워킹맘이지만 완모했어요'라는 7가지 소주제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참고로, 본 수기집의 간략한 목차는 <표2>와 같다.

---

7) '시리즈 미팅(Series Meeting)'에서는 '모유수유의 장점, 모유수유 시작하기, 수유시 어려움 예방하기, 영양과 이유'라는 4개의 주제를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다룬다.

8) http://www.unicef.or.kr/news/notice_view.asp?idx=23985&sKey=&sWord= (검색일: 2014년 4월 2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엄마들의 수유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공모대상은 '모유수유에 성공했거나, 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18세 이상 성인여성'이었다. 참고로, 공모주제는 '모유수유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 모유수유를 하면서 느낀 모유수유의 중요성, 기쁨, 보람, 재미있는 에피소드, 모유수유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 기타 모유수유 권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었다. 심사는 '외부 모유수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심사기준은 '주제에 대한 적합성, 모유수유 권장 시 활용 가능성, 홍보 가치성 등'이었다.

<표2> ‘초보엄마들의 좌충우돌 수유기’ 본문 구성

순	제목	글쓴이	구분
1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	한원정	엄마와 아기와의 사랑의 교감
2	숲 속 모유수유 체험을 통한 행복	안진영	
3	모유수유를 통한 아기와의 교감	조혜인	
4	옹달샘이야기, 마르지 않는 신선한 물줄기, 젖	설경숙	
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조서림	
6	튼튼하게 야무지게 잘 키우는 비결은 모유수유	김숙정	
7	모유수유는 엄마가 주는 최고의 사랑!	김효진	
8	성공의 비결은 믿음	박금옥	
9	″모유″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김유미	
10	인내와 감내의 값진 열매, 완모	임정현	
11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박소진	
12	네 명의 아이에게 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이미령	모유량은 충분한가요
13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현주	
14	나, 완모하는 여자야!	박초혜	
15	나의 소중한 보물들	홍순진	
16	모유수유, 어떠셨어요?	정선영	
17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귀한 선물	이명주	
18	최선을 다한 거에요? 네! 최선을 다한 거에요!	강인자	
19	모유수유 포기하지 마세요.	권오연	
20	가장 값진 보물, 특권, 모유	혜정엘쓰 홀쯔	이른둥이도 튼튼하게 키우는 엄마젖
21	모유, 사랑하는 내 아기에게 준 첫 선물	권지혜	
22	모유수유, 실패와 그리고 성공	박현수	
23	아이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권혜정	젖몸살이 왔어요
24	모유수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	이선영	
25	모유수유, 아는 만큼 성공 할 수	이지영	

	있어요.		
26	아기와 엄마를 이어주는 사랑의 징검다리, 모유수유	백현숙	유두혼동이 왔어요
27	초보엄마의 모유수유 도전기	김희경	
28	눈물의 모유수유 언덕을 넘은 13 개월의 대장정기	김소연	함몰유두도 모유수유 가능해요
29	함몰유두도 완모 할 수 있어요!	정재화	
30	어머! 튼튼한 사내아기네요!	김서정	
31	모유수유! 꼼꼼한 준비와 환경이 중요해요	김하늘	
32	사랑해, 아들아	이민정	
33	꼭 먹이고 싶습니다.	최미경	
34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김혜정	
35	내 아이를 키운 건 8 할이 회사의 모유수유실이었다.	장성연	워킹맘이지만 완모했어요
36	라희와의 수유데이트	이민희	
37	엄마의 첫번째 선물	조은숙	
38	직장맘의 16 개월간 완모한 모유수유기	김연경	
39	브이넥 티셔츠만 입는 엄마	허경이	

2) 집단 경험 차원

본 연구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연구에 적합한 집단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활동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인정받은 '카페N'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 2월 20일 개설된 '카페N'은 특정 지역에 기반한 육아 정보 커뮤니티로, 2014년 3월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의 대표카페[9]로

9) 네이버 카페 상위 0.1% 중 카페 활동이 많고 공유된 정보의 양과 품질이 우수한 카페가 '대표카페'로 선정되며, 대표카페 선정은 매년 1회 실시된다. 2014년 3월 18일 발표된 네이버 950만 카페를 대표하는 '대표카페'는 총 571개이며, 이를 위해 네이버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의 카페 활동을 평가하였다. 참고로, 네이버는 '카페 규모, 활동성, 정보성, 주제 적합성, 운영원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표 카페를 선정한다.
(출처: http://section.cafe.naver.com/RandomPowerCafeList.nhn, 검색일: 2014.04.29.)

선정되기도 하였다. 공통 관심사를 통해 직장맘과 전업맘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카페N'의 노력은 꾸준한 회원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상반기 카페 활동 내역을 네이버 카페 자체 랭킹 산정 기준인 2주 단위로 살펴보면, 평균 게시글은 1,853건, 검색조회는 155,340건, 댓글은 18,607건, 신규 가입회원수는 365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상반기 카페N의 활동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 2014년 상반기 '카페N' 활동 내역

구분	게시글수	검색조회수	댓글수	가입회원수
2014/01/01~2014/01/15	1,570	114,395	15,354	334
2014/01/16~2014/01/31	1,688	113,140	17,937	370
2014/02/01~2014/02/15	1,706	122,200	17,224	389
2014/02/16~2014/02/28	1,997	115,064	19,249	359
2014/03/01~2014/03/15	2,045	139,199	21,311	397
2014/03/16~2014/03/31	2,170	146,626	22,430	371
2014/04/01~2014/04/15	2,130	152,011	22,090	359
2014/04/16~2014/04/30	1,685	213,295	15,542	353
2014/05/01~2014/05/15	1,261	175,444	10,824	329
2014/05/16~2014/05/31	2,142	197,740	20,276	413
2014/06/01~2014/06/15	1,841	165,582	19,511	315
2014/06/16~2014/06/30	2,006	209,386	21,534	386

* 출처 : 카페N 카페소개> 랭킹> 카페활동내역

‘카페N’의 주요 메뉴로는 <카페회칙>, <공지사항>, <n[10]에 뭔일 있어요~>, <건의사항>, <신고게시판>, <자유로운글>, <ABC Q&A>, <육아 게시판>, 지역 n의 교육기관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n에서 잘 배워요♡>, 시터정보를 나누는 <아이돌봄 이야기♡>, 무료 드림과 유료 판매 장터인 <벼룩시장↓↓↓>, 번개와 정모 게시판인 <우리 만나봐요↓↓↓> 등이 있다. ‘모유수유’라는 특정 주제로 개설된 게시판은 없으며, 회원들은 모유수유 관련 글을 <자유로운글>, <육아 게시판>, <ABC Q&A>에 올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카페N’의 개설시점인 2009년 2월 20일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전체 게시판에서 제목과 내용상 ‘모유수유’로 검색되는 게시물 총 51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게시판별로 살펴본 작성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카페N’ 게시판별 모유수유 관련 글 게시 현황

순	게시판구분	게시글수(개)
1	자유로운글	214
2	육아 게시판	74
3	ABC Q&A	71
4	팔아요	47
5	구해요	26
6	다이어트 게시판	26
7	드려요	23
8	직장맘 게시판	12
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7
10	드림후기	4
11	따뜻한 세상	2
12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이....	2
13	아이키울 때 누릴 수 있는 혜택	2

10)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지역과 카페명을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카페N’의 활동근거지는 'n'으로, 한글정식명칭의 약어이자 애칭으로 불리는 단어는 ‘ABC’로 표시하였다.

14	(구)광고	1
15	n에 뭔일 있어요~	1
16	시터정보나눠요	1
17	아이와 나들이하기	1
18	아이와 외식하기	1
19	연세대 아동발달 연구소 ♥아동발달이야기	1
20	핫딜 정보!!	1
총합계		517

3) 조직 경험 차원

조직 경험 차원에서는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젖먹이는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라레체리그 인터내셔널(La Leche League International)'이라는 전지구적 NGO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라레체리그의 미션은 엄마간의(mother-to-mother) 지원과 응원, 정보, 교육을 통해 전세계의 어머니들이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아기와 어머니의 건강한 발달의 중요한 모유수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1956년 Marian Tompson과 Mary White가 참여한 CFM(Christian Family Movement)[11] 야유회에서 잉태되었다(Kaye Lowman, 2007: 13). 젖 먹이는 어머니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녀들의 노력은 1956년 젖먹이는 7명의 어머니들의 실제 모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현재 전세계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조직인 라레체리그 인터내셔널(La Leche League International)[12]로 성장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라레체리그'라는 이름하에 어머니들이 모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라레체리그 시리즈 미팅(series meeting)이 월 1회

11) 초창기, CFM은 'Catholic Family Movent'의 약어였다(Jule DeJager Ward, 2000: 8).
12) '라레체리그'라는 이름 뒤에 국가와 지역명을 붙여 조직을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La Leche League in Korea', 'La Leche League of Seoul'과 같은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La Leche League Internatinal'은 전지구적 모임을 포괄하는 명칭이라 하겠다.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조직 경험 차원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라레체리그 서울(La Leche League of Seoul)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5회[13]의 월 정기 공식 미팅을 가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젖 먹이는 어머니와 아기였는데, 월 1회 모여서 모유수유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했다. 리더뿐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기 하지만, 이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닐 뿐더러 그녀들의 한국어 구사가 능숙하지 않아서, 이 미팅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미팅에 나오는 성인들은 모유수유에 관심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외국에서 온 초보맘으로, 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을 했거나, 남편 직장 문제로 서울에 임시로 거주하게 된 경우였다. 대한민국 서울을 근거지로 한 모임이지만, 연구자처럼 한국어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참가자는 거의[14]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레체리그 서울의 리더인 Z의 도움[15]을 받아, 정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16]으로 이메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나눠주고, 인터뷰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메일 주소를 직접 적어주기를 부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설문지 파일을 전송하여 어머니들이 직접

---

13) 2014년 6월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의 리더인 Z가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라레체리그에서 인증한 리더의 부재로, 이 모임은 더 이상 라레체리그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다. Z에 의하면, Z 자신이 대한민국을 떠날 때를 대비하여 이후 모임을 이끌 리더로 Y를 예상하였으나 Y가 라레체리그 리더로 인증받은 후 Z에 앞서 다른 나라로 이사갔다고 한다. 이렇게 라레체리그 서울은 리더의 부재로 인해, 그룹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모이기를 원하는 관계로, 2014년 6월부터 비공식 모임의 형태로 전환하여 자신들의 만남을 이어갔다. 참고로, 추후 그녀들 중에 라레체리그에서 인증받은 리더가 나오면, 이 모임은 다시 라레체리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공식 모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4) 참여관찰 기간 동안, 연구자와 같은 한국인 어머니 한 명을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서 만났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이미 젖을 뗀 상태였으며, 리더가 되고자 싶어서 모임에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후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15) 라레체리그 서울의 리더 Z는 연구자가 작성한 영문 질문지를 사전에 검토해 주었다. 그리고, Z는 2014년 5월 라레체리그 마지막 모임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공식 모임 전, 후로 본 연구와 인터뷰에 대해 구두로 설명해 주었고, 연구자가 알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뷰 참여 희망 여부를 표현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16) 2014년 5월 라레체리그 서울의 마지막 모임에 참석한 젖먹이는 어머니 모두 이메일 주소를 직접 연구자에게 적어주었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본 연구자는 2014년 5월 모임에는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연구자가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어머니들에게 이메일로 설문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어머니들이 작성한 응답지를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의 공용어가 영어인 관계로 질문과 답변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어머니들의 영문 답변을 취합한 뒤, 한국어로 1차 번역 후 윤문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어머니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제보자의 답변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메일 또는 면대면으로 제보자의 답변 내용을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어머니들에게 설문 요청시 안내한 것처럼, 응답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참고로, 라레체리그 서울 제보자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5> 라레체리그 서울 제보자 인적 사항[17]

구분	수유기간	모임참석횟수	회원[18] 여부	특이사항
참가자A	13개월	13회	O	그룹 일꾼으로, 도서를 담당함
참가자B	6개월	4회	X	
참가자C	9개월	14회	O	모유만 먹임
참가자D	12개월	6회	O	듀라(doula)[19]
참가자E	25개월	4회	O	출산교육가[20]로, 자체 모임 운영중
참가자F	15개월	12회	O	
참가자G	7개월	1회	X	조산(23주+6일)

17) 라레체리그 서울의 제보자 전원은 모유수유 중인 어머니로, 특히 제보자 C는 9개월간 모유만 먹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어머니들은 자신의 참석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8회로 대답한 제보자 D의 모임 참석 횟수를 6회로 기재하였다.

18) 라레체리그 서울은 임신한 엄마들과 수유하는 엄마들에게 열린 모임으로, 라레체리그 조직차원에서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 만약 참가자가 라레체리그를 후원하는 회원(member)이 되고자 한다면, 라레체리그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연회비 25불(US dollar 기준)을 지불하면 된다. (출처 : http://www.llli.org/membership.html?m=1,2,1)

19) 산모를 돕는 분만 보조자를 듀라(doula)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다른 여성을 돕는 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분만 보조자로서 듀라는 "분만 전부터 분만이 끝날 때까지 산모와 함께" 하며, "라마즈 호흡법과 산통 주기에 맞춰 효과적인 힘주기에 대해 조언하고 전신 마사지로 산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 2014년 6월 3일) http://health.naver.com/delivery/detail.nhn?contentCode=del_037&upperCategoryCode=40

이외에도, 본 연구자는 <표6>과 같이 시리즈 미팅에 총 8회에 참석하였으며, 라레체리그 회원[21]으로 참여관찰을 하였다. 그리고, 유일한 라레체리그 한국인 리더로 홍콩에서 활동중인 조혜연씨가 라레체리그 관련 내용을 검토해 주었다.

<표6> 라레체리그 서울 시리즈 미팅 참여 관찰 일정

차수	날짜	장소	시간
1	2013년 6월 27일	H커피숍 (이태원)	10:30～12:00
2	2013년 7월 25일		
3	2013년 8월 22일		
4	2013년 9월 26일		
5	2014년 2월 27일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	2014년 3월 27일		
7	2014년 4월 24일		
8	2014년 5월 22일		

300,

20) 참가자E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출산교육가(Childbirth Educator)'로 소개하였다. 참고로, 김중진 외 2인(2013: 107)은 '출산교육가(Childbirth Educator)'라는 직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미국에는 출산을 지원해주는 전문가로 출산교육가(Childbirth Educator)가 있다. 이들은 출산 방법 및 계획을 산모에게 제공하며, 산모 및 산모 가족들에게 출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 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임신, 출산 과정에 도움이 되는 출산 트렌드, 출산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 병원 제휴 산호조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21) 연구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라레체리그 회원일 뿐 아니라, 2014년 2월 모임 장소 변경 필요가 대두되면서 한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라레체리그 서울 참석자들을 대신해서 장소 섭외와 예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경험, 학습 그리고 지식

경험은 학습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고리이며, 여성이기에 가능한 출산과 같은 경험은 여성의 몸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정민승, 2010: 307).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교육론에서, 경험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자기고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근거"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소통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성찰적으로 전유된 경험은 "자신이 형성하는 힘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기도 하다(정민승, 2010: 303).

이와 같은 경험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Kolb(1984)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Dewey와 Lewin, Piaget의 연구에 기반하여, Kolb는 학습을 "경험의 전화(轉化, transformation)를 통한 지식 창조의 과정(Kolb, 1984: 38)"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지식은 학습이라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지식과 개인적 지식', 즉, '객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경험'간의 처리(transac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창조되고 재창조된다(Kolb, 1984: 36~38).

경험이 학습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Kolb의 연구는 이론과 실천을 종합하고자하는 노력의 결과였다(Kolb, 1984: 20). 부언해서 말하자면, Kolb는 자신의 경험 학습 이론을 통해, 경험(experience)과 인식(perception), 인지(cognition), 행동(behavior)를 결합하는 학습에 대한 총체적(holistic)인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olb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태도가 경험 학습의 4가지 방식, 즉,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 간의 대치를 통해서 획득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학습의 과정 속에서, 개인은 행위자(능동적 실험)에서 관찰자(성찰적 관찰), 그리고 구체적인 관여(구체적

경험)부터 일반적인 분석을 위한 거리두기(추상적 개념화)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degree)에서 움직인다(Kolb, 1984: 31). 학습은 이렇게 정반대의 능력을 요하는 것으로, Kolb는 이러한 학습의 과정을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결국 그는 특정한 학습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학습 양식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Dewey에게 있어, 지식은 "삶의 과정에서 인간이 발견하고 창조해 낸 것"이었다(박철홍 역, 2002: 5). 그리고, Dewey는 "진정한 교육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박철홍 역, 2002: 108). 지식을 삶의 경험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본 Dewey는 누구보다 '경험'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의 강조는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또는 실행으로부터의 학습"을 뜻하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경험학습의 범주에는 사회적 정책과 행동이라는 '의식화교육', 경험의 인증이라는 '역량기반교육', 학습과 일의 통합(integration)으로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 협동학습을 포함하는 '경험교육(experiential education)', '반성적 학습' 등의 개념들이 포함된다(Kolb, 1984: 17~19; 최돈민, 2001: 378~379).

학습 이론[22]의 두 축인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이론에서도 학습은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성진 외, 2009: 135). 부언하자면,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을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로,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을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 연합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로 정의된다. 공통점뿐 아니라, 두 정의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변화'를 '행동'이냐, 아니면 '정신 연합'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연구대상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본 행동주의자들은 생리학의 관점에서 동물실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반면, Piaget, Lewin, Koffka, Bandura와 같은 인지론자들은 공통적으로

22)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뇌연구에 힘입어, 학습은 "뇌에서 일어난 변화", 즉, "신경세포간 신호전달이 빨리 이루어져 정보처리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이성진 외, 2009: 276).

“지능의 발달을 인지구조의 발달로 설명”하였다. 인지론자들에게 있어, 유기체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이며, 학습은 “인지구조가 복잡해져서 환경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김신일, 2001: 18~19). 행동주의든 인지주의든, 그들의 이론에서 인간 학습자는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점에서, 학습 연구의 확장으로 김신일이 제시한 ‘학습 행위(learnining action)’ 이론에서의 보는 학습자, 즉, “의식을 가진 존재”와 대비된다(김신일, 2001: 30).

이렇게 학습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습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Argyris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학습을 ‘외부 환경’에서 오류를 확인 것과 ‘내부’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내재된 프로그램(underlying programme)의 변화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않거나 이를 보지 못할 경우 오류를 고치겠다고 나름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깊은 문제의 늪 속에 빠지는 형국에 이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내재된 프로그램(underlying programme)을 고쳐지 않고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야기시키는 오류이자 본원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문제 표면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rgyris는 전자의 경우에 ‘단일고리(single-loop)’ 학습이, 후자의 경우에 ‘이중고리(double-loop)’ 학습[23]이 일어난다고 하였다(Chris Argyris, 2007: 24~25). 또한, 그는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학습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의 방식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Chris Argyris, 1991: 99~100).

Argyris가 예시로 말한 내재된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전환학습(transformation learning) 이론에서도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의미구

23) Argyris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 비유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역, 2010: 107).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방안의 온도가 화씨 68도 이하로 떨어질 때 자동적으로 히터를 켜는 온도 조절 장치는 단일고리 학습의 좋은 예이다. 또한 온도 조절 장치가 “왜 화씨 68도에 맞춰어져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난방을 위한 경제적인 온도를 탐색하는 것은 이중고리 학습에 비유할 수 있다.”

조의 이중적 작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일고리(single-loop)' 학습을 통해 내재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심리문화적 의미구조(psychocultural meaning structure)'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내재된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의미구조'는 "왜곡된 인식, 판단, 감정 태도를 지니게 하여 삶을 왜곡하기도" 한다(김경희, 2001: 440).

이러한 유사한 논리 전개는 Argyris가 Lewin의 연구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행동과학[24]과 전환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한 "자신의 가정체계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화와 비판적 담론"에 기인한다(강선보 외 역, 2011: 251). 그리고, 두 이론 모두 "우리의 신념과 가치에 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치며 보편적이고 해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표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동과학이 "급격한 변화를 위해 잘 개발된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행동과학은 개인 수준에서의 전환학습과 유사하며 조직학습과 학습조직은 조직적 수준에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강선보 외 역, 2011: 250~251).

또한, Argyris는 이러한 학습 구분을 통해, 전문가들도 배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단일고리' 학습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이중고리' 학습에는 서툴기 때문에[25], 전문가들도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시

---

24) 행동과학이란 "신봉되는 이론과 이론의 활용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론과 실제를 모두 포괄하며, 개인이나 조직 단위에서 진단 또는 개입의 도구로 활용"된다. 그리고 행동과학의 핵심 개념으로는 "모형Ⅰ(단일 고리)과 모형Ⅱ(이중고리) 행동, 방어와 같은 행동이론"이 있다(강선보 외 역, 2011: 243~244).

25) 문제(problem)의 유형은 구체화와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구조화된 문제(well-defined problem)'와 '비구조화된 문제(ill-defined problem)'으로 구분(이성진 외, 2009: 164)되는데, 전문가들이 익숙하고 그들을 똑똑하다고 인증해 준 문제는 바로 '구조화된 문제'이다. 하지만, 그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구조화된 문제라 아니라 '비구조화된 문제'이고, '구조화된 문제'를 통해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실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방어적이 된다. 즉,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현실 사회(real world)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것들을 배울 때 성공적이었던 '단일고리' 학습 전략을 정작 그들이 전문가가 된 이후 처하게 되는 실생활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않고, 이전에 이러한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문가들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된다(Chris Argyris, 1991: 100).

작하는 것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문제들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Chris Argyris, 1991: 100). 이 두 가지 차원의 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Schön과 Argyris는 '이중고리학습(double-loop learning)'을 통해 '단일고리학습(single-loop learning)'의 전제 조건 등을 의심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김경애, 2006: 40).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다. Oakeshott의 말을 빌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항상 관념의 전체 세계를 변형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장상호, 1997: 276, 재인용). 이러한 그의 생각은 Chris Argyris와 Nonaka Ikujiro의 연구로도 이어진다.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식이 창조된다고 본 Nonaka Ikujiro(1991: 101)는 지식변환과정[26] 중 하나인 '표출화'를 노하우뿐만 아니라 정신 모형과 신념을 포함하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표출화'는 자신과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으로, 세계(world)에 대한 자신의 비전, 즉, '실제(實際, what it is)'와 '실재(實在, what it ought to be)'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과정(Nonaka Ikujiro, 1991: 99)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 과정은 표현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유경험

우선 모성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어머니를 연구의 초점에 두고 행위자인 어머니의 관점에서 모성경험을 기술 및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한 연구들이 있었다(Mary Georgina Boulton, 1983; Besty

26) 지식이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된다고 본 Nonaka Ikujiro는 지식 변환의 방식으로 사회화(socialization), 연결화(combination), 표출화(articul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라는 유형을 제시하였다(Nonaka Ikujiro, 1991: 98~99).

Wearing, 1984; Chris Everingham, 1994; Martha McMahon, 1995). 이러한 연구 흐름에 더불어,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변혜정, 1992; 김지혜, 1995; 김은실, 1996; 윤택림, 1996; 노영주, 1996; 신경아, 1997)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성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성인 학습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나윤경 외, 2007: 57).

기존에 선행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경험 관련 연구들은 주체로서 각 개인의 경험에 집중하였을 뿐, 어머니들의 집단적·조직적 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라레체리그(La Leche League)가 어떻게 모유수유 성공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되었는지를 밝힌 연구(Hannah Meara, 1976)와 라레체리그를 비롯한 서포트(support) 그룹에 주목한 연구(M. Kyenkya-Isabirye, R & Magalheas, 1990; Kath Ryan, 1997)들과 같은 국외 연구 흐름과는 사뭇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세상 밖으로 그녀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그 시도 자체로 의미가 있다. 백경선과 이수연(2010)은 2006년 모유수유대회에 참여한 영・유아 수유모 14명의 체험 수기를 분석하여 모유수유 과정과 현상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신현정(2006)은 연구자의 모유수유체험을 바탕으로 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및 자신의 육아일기, 비디오기록과 영화 등을 통해 모유수유 현상의 의미를 찾아내어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에 앞서,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모유수유 경험의 의미와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과 관련된 신념, 태도를 밝히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김신정, 이정화, 1993). 또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모유수유'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김신정, 양숙자, 1997; 김융희, 2006; 김선희, 2009).

이외에도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본 모성경험을 살펴본 한 연구(노영주, 1998)에서는 모유수유를 여성의 몸의 경험의 하나로 보고, 이를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논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유경험에 대해 “지식과 입장의 차이가 제보자 주변의 권력관계와 가족구조의 영향을 받는 최초의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노영주, 1998: 53), 임신과 출산과 더불어 수유경험은 독특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주장한 그녀에 의하면, 수유경험은 단순한 몸의 경험이 아니라 정체성의 경험이다(노영주, 1998: 104).

한편,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측정 도구 개발(김윤미, 박영숙, 2004)과 초산모의 완전모유수유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김윤미, 2006)가 있었다. 그리고,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의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관계(권인수 외, 2008)를 밝히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

Ⅲ. 중구난방(衆口難防)

집단 경험 차원에서 살펴본 카페N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속회원들에게 있어서 친정같이 푸근한 곳으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다. 글쓰기 기본 설정으로 오른쪽 마우스 사용 금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카페N은 회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은 카페N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이는 회원들간의 유대를 보다 돈독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카페N은 회원들에게 있어서 궁금한 것을 선배맘들에게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고, 이미 앞서 겪은 선배맘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카페N 자체내에 회칙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카페내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회원 등급 및 게시판 사용설명서, 그리고 삭제대상 글과 강등대상 글에 대한 규정 등은 클린카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이는 보다 원활한 카페 운영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자,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다.

카페 운영진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쌓여서, 카페N과 함께한 추억은 회원들에게 기념할 만한, 의미있는 것이 된다. 등업과 같은 기쁜 일이나 자신의 글의 개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를 회원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상차림을 해 주겠다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이벤트에 대한 글도 종종 올라온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육아정보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페N은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들간의 소중한 인연이 오프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카페N과 함께 한 시간은 그렇게 가상세계를 넘어 그녀들의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고, 카페에서의 나의 활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카페N의 회원들간의 경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카페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애정은 그들이 의인화하는 카페의 애칭인 ‘ABC′을 대하는 그녀들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제목: 너란 놈.^^~~>
참....
정말 나쁜놈이예요
매일 눈앞에 아른아른
얼집서도, 친구와의 모임서도, 아기밥먹일때도
눈앞에서 잊혀지질않고 나의 맘을 사로잡은 그 놈
하루에도 몇번, 많을땐 몇십번씩 자꾸 보게되는 그 놈
ABC...
그 놈두 절 사랑하겠죠?
저 ABC병걸린 거 맞쥬?ㅎㅎㅎ
글도 자주자주 쓰고 싶은데 눈팅이나 댓글만 자주 달게되네요
그래두 ABC 그놈 절 여전히 사랑해주겠죠?
(작성자: 삐글레또, 작성일: 2014.04.09.)

<제목: ★★게시글 200개, 덧글 3000개 ...ABC와 함께한 추억★★>
ABC와 함께한 추억이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네요!!
다른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눈물나네요..
흑흑..ㅠ.ㅠ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심해 인터넷 광클하다 ABC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폐인이 될줄이야..
백일아가와 집에 있기 힘들다던 제가..이젠 돌쟁이 엄마가 되었네요~
많은글과 댓글만큼 좋은 추억도 많고, 때론 직설적이고 강한 성격탓에 제글에 상처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듯 해요.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좋은 카페 위해 묵묵히 숙오하시는 마지심슨 이하 운영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작성자: 제이니, 작성일: 2014.04.30.)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물리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젖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함부로 누구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묻지도 않은 자신의 젖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곳에서 그녀들은 어디에도 차마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카페N내 이러한 친밀감은 어머니들이 작성한 글과 댓글들을 통해 쌓이고, 그렇게 쌓인 신뢰속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부담없이 털어놓았다. 이는 작성자의 모유수유 경험 관련 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카페N에는 '모유수유'라는 특정 주제만을 위해 개설된 게시판은 없지만, 회원들은 모유수유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로운글>, <육아 게시판>, <ABC Q&A> 등에 올리고 있다.

1. 알려주세요.

1) 혹시 이런 적 있는 맘들 계십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도움이 절실하지만, 창피해서 차마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은 카페N에 글을 올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병원에 가기도 창피하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어느 병원을 가야될지 몰라서 막막한 마음에, 그리고 몸의 이상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으로, 초보 엄마는 아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ABC 선배맘들께 도움을 청하였다.

<제목: 제..가슴이....(창피하지만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요..)>
며칠 전부터 왼쪽 가슴이 좀 아프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 유륜부위에 뾰루찌가 났네요...흑..
모유수유하면서 유륜부분에 하얀 돌기가 몇 개 생기잖아요.(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 중 하나가 여드름처럼 곪을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째요??

여드름처럼 곪으면 짜면 되나요??
제가 젖양이 적어서 모유수유도 길게 못했구요..
3개월만에 직장나가면서 하루에 2번 정도 유축하면서 그것도 귀찮아... 그냥저냥 줄어서 단유된거거든요...
제대로 단유못해서 그게 안에서 잘못 된건 아니겠죠??
다른 부분은 안아프구요..딱 그 뾰루찌 난 부분만 아퍼요..
근데 여드름 나면 그렇듯이 그 부분이 뭉근~히..아퍼요...
혹시 이런 적 있는 맘들 계십니까??
병원 가기도 창피하고.. 어느 병원 가야될 지도 모르겠고...
괜히 겁나고 그러네요..
절 도와주셔요..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 2011.06.01.)

위 글에 대해 작성자 외에 다른 이들이 총 7개[27]의 댓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주요 댓글을 작성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슴은 늘 걱정인부분이죠~~
저는 모유수유 18개월내내 완전 맨날걱정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니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넘 많은 이름모를 병명들이 있기에 말입니다..
저도 그런적 있는데..병원에서 별거아니란 이야기 들었으니..걱정마시고 그냥 한번 가보심이...
(작성자: 20킬로빼기, 작성일: 2011.06.01.)

저도 모유수유 중에 그런적 있어요.. 하필 유두 정 가운데 좁쌀만한게 나서 어찌나 아팠던지..너무 아파서 산부인과에도 갔었지만 의사선생을 잘못 만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되도록 그쪽으로 젖 안물리고 집에 있는 비판텐 연고 바르니까 한달정도 지나니 좋아졌어요. 나중에 젖말릴때 모유사랑 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받았는데 거기 관리하는 선생님이 그런 증상에 대해 뭐라 했었는데 예전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27) 해당 글에 대해서는 모두 12개의 댓글이 달렸으나, 이 중 타인이 작성한 총 7개로 그 중 1개는 삭제된 상태이다.

한번 모유사랑 싸이트에 가셔서 질문해 보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작성자: 뽈린맘, 작성일: 2011.06.01.)

그게 유구염 같은데 전 소독한 바늘로 직접 터트렸어요 아팠지만 그렇게 해결했지요
(작성자: 언제나, 작성일: 2011.06.01.)

산부인과 아니구요.. 유방외과가 맞아요. 전 수유중일 때 울 아들 아구창 있었는데 저한테도 전염되서 유두옆 뾰루지 하나가 곪기 시작했는데.. 신경안썼더니.. 속에 콩알보다 더 크게 만져지는거예요. 유방외과 갔더니 메스로 살짝 째서 곪은거 뺐는데.. 또 차올라서 한번 더 쨌어요.. 저처럼 키우지 마시구 얼른 가보세요..
(작성자: 시현맘, 작성일: 2011.06.01.)

선배맘들은 모유수유를 하는 내내 마음 졸였던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면서, 초보맘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이미 이러한 경험을 겪은 선배맘들은 겁에 질린 초보맘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겁에 질린 그녀를 다독였다.

2) 이것이 궁금해요.

어머니들은 모유수유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카페N에 올렸고, 이미 경험한 어머니들은 그에 대한 답을 댓글이나 답글로 달아주었다. 특히, 어머니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자, 먼저 겪은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글을 사람들이 많이 조회했으며, 댓글도 많이 달았다. 참고로, 아래 글에 대한 조회수는 234회, 댓글은 총 52개였다. 이 중 선배맘들이 입력한 댓글수는 26개였다.

<제목: 모유수유시 생리 언제 시작들 하셨어요?>

둘째 출산한지 두달 안됐구요 유선염 때문에 유축하면서 하루 평균 2번정도 분유 보충하다 얼마전부턴 직수 완모중인데.... 끝난줄 알았던 오로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요... 생리시처럼... 결국 라이너대신 생리대 했어요.... 이거 생리인가요? 첫째땐 수유 끝날때까지 일년 넘게 안했었거든요. . ㅜㅜ

(작성자: 희야 맘, 작성일: 2014.03.20.)

이렇게 솔직한 글들을 통해 회원들은 더욱 마음을 열 개 된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많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초보맘들은 카페N의 선배맘들을 믿고 질문을 했고,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초보맘들은 카페N의 이야기를 보다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이자 강의를 실시하는 보건소에 문의하기 전에, 이 모유수유 강좌에 대해서도 카페N의 선배맘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녀들에게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순서이다. '호호아줌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n'에 기반한 카페N에는 이미 그 강의를 들어본 회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카페N의 회원들의 보건소 모유수유 강좌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자신에게도 나눠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제목 : n 보건소 모유수유 강좌들어보신 맘들 ~>

이제 33주인 임산부예요 ㅎ 혹시 보건소에서 하는 모유수유 강좌들어보신 맘들 계신가요? 특별한 예약없이 그냥가면 되나요? 저희집에서 n 보건소까지 갈려면 먼데 가서 들을만한가 궁금해요

(작성자: 호호아줌마 410, 작성일: 2014.03.28.)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그렇게 선배맘들은 신청방법에서부터 강의에 대한 나름의 평가, 그리고 결국 강사가 운영하는 클리닉 선전이라는 등의 자신의 의견을 매우 직설적으로 초보맘에게 공유해 주었다.

전화해서 예약하셔야되요 (작성자: 스토베리맘, 작성일: 2014.03.28.)

저 임신했을 때 들었는데 비추요 ㅠ 도움 안되고 형식적이예요. 차라리 인터넷으로 배우세요 ^^ (작성자: 하쿠로, 작성일: 2014.03.28.)

제 경험으로도 별로였어요 결국엔 자기 클리닉으로 오라고 명함주더라구요~ (작성자: 윰, 작성일: 2014.03.28.)

예약하셔야해요~전 도움됐는데^^;; 사실 전혀 정보없다가 보건소 갔는데 들어보래서 예약하고 들은거라. 기대 제오. 정보제로였거든요~그거 듣고 아차싶구 모유수유 책 한권 샀어요 ㅎㅎ
(작성자: 윌리를찾아라, 작성일: 2014.03.28.)

별루요... 그냥 조리원에서 해주는 말들이 훨씬 도움되고 그냥 구색맞추기식. 허무했어요. 무거운몸으로 갔는데ㅜㅜ
(작성자: 다솜79, 작성일: 2014.03.29.)

전 제작년이었는데 비.추.
지금은 모르겠네요
(작성자: 푸름이맘, 작성일: 2014.03.29.)

또한, 모유수유 포기에 대한 질문도 아래와 같이 카페N에 올라오기도 한다. 아래 질문은 첫째 때 완모했던 경산모가 올린 것으로, 출산한 지 2주째인 그녀는 모유량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모유 줄이는 방법을 선배맘들에게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둔 어머니도, 아기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물어 피가 나는 상황에서 분유수유로 바꾼 선배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가 난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기는 무섭고, 아기가 분유병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카페N의 문을 두드렸다.

<제목: 모유 줄이는 법이요>
출산한지 14일째고요 조리원들어와서 정말 젖 많이 물렸어요 선생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요 첫애때는 완모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둘째때는 젖양이 점점 줄어만 가네요 나이가 있어서인지 수유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수유횟수도 많아지니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분유 먹이고 싶은데 주변에선 계속 말리니 우울한 기분만들어요ㅜㅜ 혹시 저처럼 모유 안나와서 포기한 분들 모유 줄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약 네시간 정도 지나면 모유가 가득차고 유축하면 50-60정도 나와요
(작성자: 사랑느낌, 작성일: 2013.12.26.)

<제목: 7개월아가 수유시....>
7개월된 아가인데 밑에 이가 두 개 살짝 올라와있어요
근데 요즘 수유시 쭈쭈를 무네요 ㅜㅜ
어젠 피까지 ㅜㅜ
무서운표정 지으며 아파 물면안돼 애기하면 우네요 ㅜㅜ
그러고 다시 쭈쭈 물면 무네요
모유수유하기가 무섭네요
분유로 바꾸려는데 젖병은 물지도 않고 우네요
어떻게하죠? 너무 아푸네요 ..... ㅜㅜ
(작성자: 뽕뽕, 작성일: 2014.04.01.)

그리고, 육아휴직 상태에서 8개월간 모유수유를 했지만, 어머니의 복직과 더불어 아기도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모유수유 중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젖을 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모유수유 중단은 이미 그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단지 이를 실행할 방법에 대한 탐색, 그리고 이에 대한 그녀의 선택만이 남겨진 상태였다.

<제목: 아이는 얼집적응중. 모유수유 중단해야 되는데...힘드네요>
휴직중입니다. 복직 때문에
얼집 적응기간이라서 8개월 딸냄을 데려다 놨는데, 데리러 갔더니 자고 있다고 하셔서 깨면 연락주세요. 하고 다시 집에 왔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것 같습니다.

모유수유 아직 떼지 않고 적응중이라서 오랜 시간 있지는 않는데....

갑자기 얼집적응하며, 모유도 떼면 아이가 힘들어 할것 같아서 우선 얼집 하루에 2시간씩 적응하고, 적응기 끝나면 모유수유도 끊으려고 하는데....힘드네요.

모유 수유 떼는 법좀 알려주세요..ㅜㅠ

이유식은 조금씩 하고있고, 분유도 기분 좋으면 가끔 먹기는 하는데....

약은 먹기 싫은데

자연스럽게 떼려니 힘드네요. 휴~

(작성자: Rena, 작성일: 2014.03.13.)

카페N에는 단유에 대한 자유로운 어머니들의 생각과 선배맘들에게 단유 방법을 구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특히, 카페N에 여러 차례 단유 고민을 올리고, 선배맘들의 의견을 구했던 한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살짝 굶기고 분유 먹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렇게 그녀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게 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소위 '독립된 인간'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일주일을 앞두고 젖을 끊게 되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젖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에게 마지막 관문인 젖 말리기가 남았는데, 나오는 젖을 억지로 말리는 그녀를 위해 남편은 이에 도움이 된다는 식혜를 끓여주었다.

<제목: 남편이 끓인 식혜>

ABC에 단유 고민 여러번 올렸었는데, 결국 아이를 살짝 굶긴 끝에 분유 먹이기에 성공했어요.

이유식을 안먹였더니 이유식 먹을 시간 4시간 후에 젖병 덥썩 물더라고요;

저 닮아서 배고픈건 못참는 성격인가봐요.

얼집 등원 일주일 앞두고 성공하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막상 젖병들

고 분유먹는 아이 보니 어찌나 가슴이 저릿저릿 하던지요.
이제 모유수유는 끊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어요. :)
이제 마지막 관문 젖 말리기만 남았는데
젖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도 역시 땡땡하니 아프네요.
식혜가 젖 말리는데 좋다하니 신랑이 엿기름 사다 식혜를 한 솥 끓였어요 ㅎㅎ …… 9개월 넘게 완모하다 단유하고나니 아직 좀 얼떨떨하지만 얼른 독립된 인간이 된 것에 적응하고 자유를 누려야겠네요 ㅎ
(작성자: 언젠가어떤날에, 작성일: 2014.02.26.)

한편, 어머니들은 자신의 모유수유 성공을 위해, 카페N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어렵게 첫째에게 1년간 젖을 먹였던 어머니인 '쥬'에게도 둘째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 백 번씩 분유수유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녀였지만, 둘째 모유수유에 성공한 선배맘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귀국예정인 초보맘은 미국 현지 상황을 전하면서, 카페N에 가입해서 쓰는 첫 글을 통해 카페N의 활동근거지인 지역 n에서 유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선배맘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제목: 둘째 모유수유>
첫째도 천신만고 끝에 완모 1년했는데, 둘째는 정말 더더더 힘드네요.
신생아라 수시로 젖 물리는데 첫째는 그걸 지켜보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분유라면 금방 먹이고 첫 애랑 좀 놀라줄 수 있을텐데 아이 어린이집 다녀오면 계속 수유 전쟁이라 첫 애는 혼자 놀다가 속상해하고 그래요. 새벽엔 수유하면 자다 깨서 나와 엉엉 울면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대성통곡 하구요. ㅠㅠ
저도 오랜 시간동안 수유하고 나면 골반도 아프고, 유두 통증도 심하고, 상처 때문에 젖 물리기도 무섭고, 그냥은 잘 물지를 못해서 보호기 끼고 수유하니 매번 보호기 소독하는 것도 일이고, 하루에도 수백번씩 분유 먹이고 싶단 생각하네요.

둘째 맘들, 모유수유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흑 ㅠㅠㅠㅠ
(작성자: 쥬, 작성일: 2014.03.24.)

<제목: 아이통곡과 오케타니중 추천해주세요>
가입후 첫글이네요^^
저는 남편따라 미국에서 지내다 2주후에 귀국예정인 초보맘이에요
여기서 출산하고 젖량부족으로 모유수유 애먹다가 결국 혼합중인데
미국에선 젖몸살나도 젖량부족해도 마땅히 전문적인 마사지 받을수 있는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국가자마자 젖량늘리는 마사지 받으려고 벼르는 중인데
공덕역에서 가까우면 좋겠지만 더 효과좋은 곳으로 가보고 싶어요
아이통곡과 오케타니중 추천 부탁드려요
(작성자: 반찬이슬, 작성일: 2014.04.04.)

또한, 혼합수유중인 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아래와 같이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아기가 백일도 되기 전에 젖이 마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 카페N의 모유수유 고수를 직접 찾아 나선 것이다.

<제목: 모유수유 고수님들 여쭙니다!>
5월에 제왕절개로 출산했고요,
아파서도 그렇지만
아무튼 일주일까지도 젖이 거의 돌지 않았어요
제대로 물리지도 못했고요
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조리하면서
마사지 같은 것도 안 받고
분유 혼합하면서 이러다 젖 늘겠지...
그러던 것이 이제 아이가 60일을 바라보는데
하루 수유 분량으로는
분유가 2/3, 모유는 1/3 정도 되려나..
지인이 추천한 more milk plus를 먹다 말다... ㅡ.,ㅡ
아무튼.. 정말 이대로 가다간

백일도 못 넘기고 젖이 마르지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완모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ㅠ
(작성자: 린이사랑맘, 2013.07.10.)

15분 뒤부터 총 1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14개의 댓글이 달린 후 린이사랑맘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다.

오... ㅠㅜ
역시나 고수님들의 의견 묻길 잘했네요
일단, 펜 들고 요약 정리 좀 해야겠어요
한분 한분 감사 인사 따로 못드려 죄송하지만
요약 정리본으로 감사 표하도록 할게요
-베이비 마사지 배우러가는 택시 안
(작성자: 린이사랑맘, 2013.07.11.)

그녀는 자신이 댓글에 적은 것처럼, 답글로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신의 절박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선배맘들이 공유해주는 경험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료맘들과 자신과 같은 고민할 지도 모를 후배맘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답글로 정리하여 올렸다.

<제목: ↳ 모유수유 고수님들 여쭙니다!>
모유 수유 고수님들의 경험담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어요
1. 자주 짜내주기 - 유축기로 특히 밤, 빈 젖일 때
2. 자주 물리기 - 1회 30분 이상, 1일 12회
밤중 수유
한쪽 수유시 다른쪽 유축
(이건 좀.. 어렵네요 포즈가 나오나... ^ ^;;)

3. 소족 미역국 락티차 물 치즈
4.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
   스트레스 안 받기
5. 마사지 업체 - 통곡, 기통맘
아무래도, 자주 물리기가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수유 패턴에 좀 문제가 있나봐요
젖이 비었다 싶으면 분유 먹이고 있었거든요.
아직 60일차... 유즙분비 호르몬이 3달 나온다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주구장창 물려보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0^
(작성자: 린이사랑맘, 2013.07.15.)

3)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N은 회원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저런 자신의 생각을 부담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카페N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어느 곳보다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열린 공간이자 온라인 육아 정보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있는 카페N이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카페에서 글쓴이와 그 글을 읽는 이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댓글을 보면, 글쓴이가 궁금한 것을 알려주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주를 이룬다.

다음에 제시된 한 어머니의 글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밤중수유 중단과 단유 프로젝트 진행하던 중 어려움에 처했고, 이와 관련해서 선배맘들의 지혜를 구했다. 이를 위해, 글쓴이 '소피아'는 왜 자신이 밤중수유 중단과 단유를 계획했는지를 글을 통해 밝혔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녀의 밤중수유 중단 프로젝트는 한 달 동안 제자리이며, 그녀의 돌쟁이 아들은 새벽마다 운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의 요구대로 자연스러운 이유(weaning)를 해야 할 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

를 계속해야 할지, 그녀가 마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한 달 동안이나 새벽마다 젖달라고 우는 아이와 씨름했다는 점, 그리고 모유수유는 끝이 더 힘들다면서 선배맘들에게 지혜로운 해결법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그녀가 바라는 답은 분명했다.

<제목: 시작보다 끝이 더 힘든 모유수유>
한 달 교육끝나 친정엄마 내려가시고
다시 컴백한 육아월드!
요즘 진정 리얼 멘붕으로 정신이 쇠약해지고
몸이 퇴화하고 있어요~

밤중수유 스탑 프로젝트는 한 달 동안 제자리며
별차도없이 그렇게 그렇게 새벽마다 울어대구요
여태 한 달 동안 말이죠 ㅠㅠ
무슨 밤중수유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빠짝 고생하면
되겠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돌쟁이 저의 아들은 여태 그렇게 울어요
그게 그렇게 서러운가봐요 ㅠㅠ

교육 받으러 다니며 힘들어도 참았건만
이젠 혼자 다시 육아에만 에너지를 쏟다보니
잠을 제대로 못자 아빠도 저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이 오째 밤중수유 다시 해야 할런지요?
밤중수유 스탑하면 단유할꺼라
그동안 쮸쮸량도 힘들게 줄여도 놨는데 ㅠㅠ
저번 주말엔 젖몸살도 왔었는데 ㅠㅠ

여튼 요즘 아들이 예전과 달리
저를 너무 힘들게하고 앙탈과 고함으로
저를 제압하려해 외출도 무섭고

대중교통 이용도 두렵고 ㅠㅠ

순둥이 아들이 돌 이후 변해도 너무 변해
단유까지 엄두를 못내겠어요 승질버릴것같고 ㅠㅠ

그냥 아들 원하는데로 자연스럽게
쮸쮸찾지 않을때까지 밀크 제공 서비스
계속 해야 할까요?
저 정말 심각해요 ㅠㅠ
초보 애미 좀 도와주세요!

밤중수유를 계획했던건
아들이 새벽에 늘 깨고 잠을 잘 못자서
주변사람들이 밤중수유 스탑하면
잠을 푹 잘 잔다 하여 시작한것이고

단유를 계획한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쮸쮸달라 징징대고
옷을 올리고 내리고 절 너무 힘들게 하고
단유하면 밥 잘 먹는다 하여
수유 횟수를 줄여가며 단유를 하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종일 징징 앙앙 잉잉
승질이 나빠지는게 보여요 ㅠㅠ

친정엄마랑 있을땐 이러지 않고 잘 지냈는데
엄마 내려가고 완전 돌변했어요 ㅠㅠ
쮸쮸줄꺼라 기대하는데 안주니 화가 나는 걸까요?

시작보다 끝이 더 힘든 모유수유 ㅠㅠ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메세지
기다릴께요 ㅠㅠ
으쩌다 글이 넘 길어졌어요 ㅠㅠ

이해해 주시와요~
(작성자: 소피아, 작성일: 2013.09.11.)

댓글에는 '지금 그만 두면 아깝다'는 것과 '밤중수유 중단과 단유를 동시에 하라'는 말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아들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아이가 원할 때까지 "밀크 제공 서비스"를 할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즉, 그녀의 일방적인 밤중수유 중단 프로젝트를 철회하고 아이가 엄마젖을 찾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젖을 주는 이상적인 모유수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카페N의 어머니들은 '소피아' 그녀가 듣고 싶은 바를 분명히 읽어냈고, 그에 대한 답만을 해 주었다.

그런 댓글을 달은 선배맘 중에는 카페N의 운영진이자 세 아이 모두에게 16개월까지 젖을 먹였던 '마지심슨'도 있었다. 아기도 이제 단념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그만 두면 아깝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심슨'이 지난 2012년 5월 13일에 작성한 글을 보면, 그녀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소 2년의 모유수유를 권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밤중수유 중단과 단유 프로젝트에 대해,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과 동일하게 중단하는데 자신의 한 표를 던졌다. 참고로, 그녀의 작성한 댓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세딸램 모두 16개월까지 완모했어요. 밤중수유도 그때까지했지요.^^;;
저는 단유 결정하면 일단 낮에 아이가 좋아할만한 곳으로 마구 나들이 다녔어요. 쭈쭈생각 안나게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먹거리 위주로(설사 그게 초코파이일지라도..) 주고. 진짜 피곤하도록 낮시간을 보냈지요.
그럼 밤에 체력이 딸려서 좀 일찍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이한태는 대일밴드 붙인 쭈쭈를 보여주고. 엄마 아야해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주고요.
정말 단유 너무 힘들지요..ㅜㅜ 마음도 짠하고.. 그래도 며칠 그랬으니 아가도 좀 단념할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그만 두심 좀 아깝잖아요.^^;;.

암튼 화이팅입니다~~
(작성자: 마지심슨, 작성일: 2013.09.11.)

위와 같은 댓글에서 보면, 그녀는 세 아이 모두에게 16개월까지 젖을 주었다. 하지만, 세 아이 모두의 수유기간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댓글을 통해 공유한 그녀의 단유 노하우를 감안하면, 카페N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마지심슨'도 어머니인 자신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 시기를 정하고, 인위적으로 젖을 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심슨'은 그 전에 모유수유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녀는 카페N에 글을 올리면서 "언제까지 수유하였나요?"와 "어디서까지 수유해 보셨나요?"와 같은 질문 형태의 제목을 붙였다.

<제목: 3살 수유..^^; 언제까지 수유하셨나요?>
기사원문 (다른 신문사 보다 내용이 좀 기네요~)
http://www.koreaherald.com/national/Detail.jsp?newsMLId=20120511000838
요건 타임 요약한 것 같기도 하구요..^^
http://realtime.wsj.com/korea/2012/05/11/%EC%95%A0%EC%B0%A9%EC%9C%A1%EC%95%84%EC%9D%98-%EB%81%9D%EC%9D%80/

신문에서는 벌집은 안했던데..ㅎㅎ
유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좀 ...

며칠전 다리 상처때문에 피부과 갔었더랬죠..
수유중이라 했더니
"몇개월인데요?"
"돌쯤 됐어요."
"아니.. 아직도 수유를 해요?!"
"왜요! 16개월(첫,둘째 먹인 개월수..ㅋ)까지는 먹일 거예요."
의사 절 무슨 미개한...-.-(who권장은 24개월인 걸로 알고 있음..흥!!)

아무튼 저 각도와 포즈가 좀...
그래서인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네요.
기사내용은 “애착육아”(데리고 자기, 업고 다니기, 모유수유 오래하기 등등)에 관련된 기사라는데
사진을 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아님 애착육아를 비판하는 기사인지도...^^;
(기사 읽어보고 싶네요.)
예전에 “위기의 주부들”에 5살짜리 모유수유하는 여자가 면접을 보러 와서 아이 젖을 물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녀의 수유 이유는 “다이어트” !모유수유를 하니 맘껏 먹어도 된다나....ㅎㅎㅎㅎ
5살 아이가 젖을 먹으면 얼마나 먹고.. 또 모유수유한다고 다이어트 된다니!! 흥 칫 핏! 입니다.
가끔 저도 공개된 장소에서 먹일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뭐..
저는 챙피한 것 없지만.. 상대방이 참 민망해 하더라구요..
하긴.. 저도 어떤 영화에서 어린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주인공 남자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니.. 좀..
애로틱하긴 했습니다..ㅋ
(작성자: 마지심슨, 작성일: 2012.05.13.)

윗글의 작성자인 ‘마지심슨’은 자신의 글에 대한 첫 번째 댓글을 단 사람으로 그녀 자신이 ‘애착육아’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음을 지적하고, 본인은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렇게 그녀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참고로 저는 그래도 애착육아를 지향한다는....
물론 육아에 정답에 어딨겠습니까만 저는 제 마음이 끌리는데로 하고 있어요..^^;
첫애는 돌전까지는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만 가도 자지러지게 울고
(예식장, 돌잔치장소.. 민폐끼친 장소 많음..ㅜㅜ)
두돌까지는 밖에서 잘 걸어다니지도 않았어요.(늘 엄마 품에 안겨서...

ㅜㅜㅜㅜㅜㅜ

세돌전까지 애두고 외출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잘때 딱 한번..-.-)

정말 겁많고 낯가림 심한 우리 큰딸..

그런데 이제는 7살 .. 새 친구에게 먼저 손내밀 줄도 알고 손님이 오면 먼저 반가워한답니다.

바르고 성격 좋은 아이라고 주변에서 칭찬 들으면

아~ 내가 삼년동안 헛고생한게 아니구나.. 뿌듯하지요..ㅎㅎ

그나저나 둘째도 이제 36개월 지났는데.. 제발 이제 좀 사람이 되었으면.... ㅜㅜ

(작성자: 마지심슨, 작성일: 2012.05.14.)

또한, 그녀는 호주에서 있었던 카페에서의 모유수유 제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수유경험을 올리기도 하였다. 세 아이 모두 16개월까지 젖을 먹였다고 밝히면서, 식당과 버스정류장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렸던 경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미혼이던 시절, 교회 유치부에서 젖 먹이던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금 세 아이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의 관점에서 당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있는 곳으로 젖 먹이기에 괜찮은 장소였다고 밝혔다.

<제목: 모유 수유 어디서까지 해보셨나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까페에서 먹이다가 제지 당했다고....-.-

저는 세아이 모두 16개월까지 먹였는데요...

사실 아기가 아주 어릴 때는 수시로 먹잖아요.

저는 누가 날 보랴싶어... 식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먹이곤 했어요...ㅋ

첫애때는 백일전부터 돌아다녔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너무 우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애기 배고파서 우나보다... 가려줄께 얼른 젖좀 물려봐~”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먹인 적도 있어요...ㅎㅎ

근데 아기 안낳아본 사람들 눈에는 무척 미개해보이나봐요...

사실 저도 미혼일때 교회 유치부에서 어떤 세련된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다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거기 다 어른은 여자고, 어린아이들만 있는 곳이니 뭐 먹여도 괜찮은 장소였는데 말이예요...ㅎㅎ

(작성자: 마지심슨, 작성일: 2013.02.27.)

4) 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젖을 먹는 아이들도 아플 때가 있다. 하지만, 모유수유아도 아플 수 있지만, 분유수유아보다 더 자주 아프지는 않다. 의학적으로도, 분유수유아의 발병과 사망이 많다고 확인된 바 있다(유영난 역, 1986: 267).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 힘들어도 모유수유를 계속하던 엄마들은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자신이 잘 키우지 못해서 아이가 아픈 것 같은 죄책감마저 들기도 한다. 또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자신의 아이의 몸무게가 잘 증가하지 않을 때, 처음부터 분유수유를 할 걸 그랬다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하기도 한다. 또래 아이들과의 비교를 하면서, 어머니들은 초조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를 위해 나름 자신이 노력하고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다른 아이들처럼 쑥쑥 크지 않을 경우, 어머니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카페N에 글로 표현함으로써, 그녀들은 그렇게 선배맘들과 소통하게 되고, 이미 겪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름의 위안을 얻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힘을 얻기도 한다.

<제목: 애가 폐렴으로 입원했어요ㅜ>

에효..

감가기 계속 안떨어지더니

점점 기침이 심해져서

청진기 대보니 숨소리가 그르렁 심상치 않은 소리나서 병원 와보니 폐렴이라네요ㅜ

바로 입원하라며-
수액 라인 잡는다고 떠나가라 우는데 가슴이 정말n
흑흑 애키운다고 집에서 애보고있고
게다가 면역력에 좋다고 모유수유도 쭉하고 있는데
애는 겨울내내 감기..이제는 폐렴까지..
더군다나 또 이유식은 겁나게 안먹고n
애를 잘 키우고 있는건가...죄책감이드는 밤입니다
에고에고
(작성자: 녹색사랑, 작성일: 2014.04.10.)

<제목 : 13개월 8.2kg 딸램 뼈만 남았어요~어찌 먹일까요??>
4kg 가까이 태어난 우리 딸 분만 후 모유 안 먹고 분유만 먹던 아이를 힘들게 힘들게 4주 넘게 노력해서 완모되었다 제가 워낙 육아에 헉헉거리며 못 챙겨먹으니 모유양이 적어서 혼합할려구 분유 수유 시도했더니 우리 따님 완강히 거부해서 어찌 어찌 6개월을 버텼는데 이유식 시작하면서 워낙 먹는 양이 적어도 “뱃고래가 작은가보다 차차 나아지겠지” 모유수유하며 그렇게 시간만 흘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분유만 먹일 걸 그랬어요
하루에 여러번 이유식을 끓여서 먹여 보고 시중 이유식 제품도 사다 먹이고 죽집 이유식도 먹였는데 3스푼이상 잘 안먹고 어쩌다 한번 100g 정도 섭취하더군요
같은 아파트 또래 아이들은 쑥쑥 커가는게 눈에 보이는데 딸래미는 점점 성장을 안하더니 결국 성장을 멈추고 이번에 폐렴, 장염 오면서 겨우겨우 9.1kg 만든 살이 쏘옥 빠져서 8.2kg 에요 흑 ㅠㅠ
지난 4주간 응급실을 내집마냥 들락날락 거리고 탈수, 설사로 입원했다 어제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예나, 작성일: 2010.11.22.)

2. 함께 해요.

1) 응원해주세요.

생명을 품고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모유수유에 대해 생각을 하기도 한다. 출산에 대한 염려, 직장맘으로서의 양육에 대한 고민, 경제적인 걱정과 그에 더불어 모유수유 실패시 발생할 비용 문제 등등, 배가 점점 더 불러올수록 점점 더 현실화되는 실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머니의 고민도 함께 점점 커져간다. 그런 상황에서 카페N은 선배맘들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머니들로부터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을 받고 싶은 곳인 동시에, 그러한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제목: 쌍둥이 16주 되어가요>
이제 삼일정도 있으면 쌍둥이 임신16주 들어서요
나이가 삼십 중반 초산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 회사 다니고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돈도 걱정 이네요
회사일에 계속되는 입덧에 힘든데 건강하게 주수
채워서 분만하고 모유수유도 성공해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텐데..잘 해나갈수 있겠지요? ㅠㅠ
(작성자: 잠탱이, 작성일: 2013.03.16.)

장 마비로 입원한 상황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자신의 상황을 전할 뿐 아니라,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없고 후줄근한 수유티만 입고 있는 자신의 우울한 처지에 대해서도 투정을 부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카페N이다. 생후 27일된 아기 때문에 내과가 아닌 산부인과로 입원한 곽은채맘은 금식 중에 수액을 맞으면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자신의 사연을 카페N에 올렸다. 친정어머니와 언니네 가족 그리고 산후도우미마저 식사를 하러 간 뒤, 그녀 혼자 남은 상황에서 그녀는 속히 금식조치가 풀리고 퇴원하고 싶은 마음을 카페N 회원들에게 전했다. 홀

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 끈을 카페N에서 찾았고, 그렇게 자신을 응원해 줄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딸딸2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창한 날씨에 예쁜 봄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유수유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도 카페N에 글을 올렸다. 그렇게 그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카페N을 통해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았다.

<제목: 저도 링갤투혼>
어제 급 입원했어요..내과가야하는데 27일된 둘째땜에 산부인과로 입원..뉴나 좋다고해.급 검색해구매했는데 아직 큰효과못보네요..ㅠㅠ 금식이틀째...수액맞고..모유수유중..... 머리가 도네요... ㅠㅠ 오늘운 꼭 밥먹길.... 원장쌤한테 죽이라도 달라고 아침에 애원했는데...
배고프고 젖도줄고...
일욜저녁 이후 금식중이네요..어제병원갔다먹으려다 입원해 계속 금식이라니...ㅠㅠ
친정엄마 짐 언니내랑 보노보노가고..산후 도우미이모 식사하러가고... 저는 누워 빈속에 수유중....
오늘 밥 먹고 낼은 퇴원하길...ㅠㅠ
(작성자: 곽은채맘, 작성일: 2014.03.18.)

<제목: 날씨가너무좋아요~>
나가고싶어서몸은근질근질하는데..
모유수유중이라..맘편히나가지도못하고..
남들은예쁜봄옷입고다니는데..
후줄근한수유티만입고사니..ㅜ.ㅜ우울해여
(작성자: 딸딸2맘, 작성일: 2014.03.27.)

또한, 147일 동안 모유수유를 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속상한 마

음에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카페N에 올린 어머니도 있었다. 태어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아기를 위해, 그녀는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기와 떨어진 상태에서 젖을 먹이고 싶어했던 그녀에게 어떠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병원 정책상 해동하고 남은 젖은 모두 버려진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축을 해서라도 아기에게 젖을 주고 싶었던 그녀는 소량의 젖을 여러 팩에 나눠담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짠 젖을 50cc 정도씩 모아서 팩에 담았고, 그렇게 그녀의 초유는 아기가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들이 버려졌던 것이다.

그렇게 눈물로 시작된 그녀의 모유수유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젖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아기의 유단백 알러지로 인해 그녀는 또 한번 좌절하게 된다. 그녀의 아기는 병원 4곳에서 총 의사 8명의 진찰을 받았고, 각종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아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의 처방대로 그녀는 음식을 가려먹었지만 아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모유 수유를 끊을 필요는 없으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아기에게 젖 먹이기를 중단했다. 아기가 혈변을 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사의 지시대로 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검사결과도 정상으로만 나오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녀는 의사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그녀 자신만이 아기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토록 해 주고 싶었던 모유수유를 그렇게 스스로 중단하였다.

현재 식단을 조절하면서 유축해서 짠 젖을 얼리고 있다는 그녀는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이 정말 행복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긴 글을 마무리 하였다. 아기에게 젖 먹이는 것이 행복했던 그녀에게 이러한 수유 중단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아기를 위한다고 먹였던 모유가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아기를 아프게 한 것 같다는 그녀의 표현처럼, 의사들이 명쾌하게 그 무엇도 설명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아픈 이유를 그저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이 주저리주저리 적은 글을 누군가가 읽어주

는 것은 그 자체로 고마운 일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필요로 했던 위로와 격려를 카페N의 어머니들로부터 받았다.

<제목: 젖 이야기>

저희 아이 오늘 부로 147일이 되었어요. 고로 저는 147일간 저의 젖 이야기를 끄적여 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안타깝게도 태어나서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이 모유수유였죠. 안그래도 수술도 해야 하는 아기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유 수유 밖에 없다 생각했고, 아기가 한번 빨지도 않는 젖으로 유축만으로 모유가 잘 늘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병원에 있으면서 유두 혼동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였죠. 그리고 출산 직후 예약해 둔 모유수유 전문가를 다음날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퇴원하기까지 약 2주간 유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한시간씩 짜서 겨우 10cc~20cc 나왔고, 밤에도 짜야 한다 하여 홀로 밤에 두 번씩 일어나 나오지 않는 젖을 짰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짠 젖을 모아 50cc를 만들어 병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몇 팩이나 갖다 주었는데 몇 번 먹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모유가 없어 분유량 섞었답니다. 알고 보니 한 팩 해동해서 5cc 먹이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으로서는 맞는 정책이라 생각했지만 미리 말이나 해주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초유로 나온 샛노란 젖을, 내가 그렇게 먹이고 싶었던 초유를, 한 방울이 아까워 쏟고는 울었던 그 초유를, 한 15cc나 먹였을까요? 나머진 모두 버려졌다니 정말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회복이 빨랐고 식이 양도 급속도로 늘어 50cc를 먹으며 출산 2주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젖은 여전히 많이 나와야 30cc 정도였고 배가 고픈 제 딸은 천천히 나오는 제 젖을 빨다 목 놓아 울기 일쑤 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전 분유 수유를 병행하였지만 항상 모유를 무조건 먼저 먹였습니다. 조금씩 분유보다 모유를 먹는 양이 늘었고 분유 수유의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가 유단백 알러지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 똥에 피가 때때로 섞여 나오곤 하여 병원에 갔다 알게 된 것입니다. 처방은 제가 유제품 먹는 것을 끊는 것과 알러지 방지 특수 분유인 HA 분유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아무 생각 않고 다 먹었는데 최근들어 아기의 피똥을 보는 횟수가 늘다 지난 열흘간 매일 8~9번씩 피가 섞인 설사를 봤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상이 없어 조금 먹었던 머핀 초콜릿 카레 이 모든 것에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아기의 피똥 때문에 찾은 병원만도 네 군대, 보신 선생님만 여덟분, 각종 검사는 모두 정상. 단지 식품 알러지의 범위를 지금 검사할 수 없으니 제가 유제품 뿐만 아니라 계란 콩 밀가루 어패류까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김과 김치만 먹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토요일 새벽 진료를 받고 있던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역시 모든 검사는 정상. 전 미칠 노릇인데 이 병원에선 대체 얼마나 피를 쏟아야 걱정할 수준인 건지 이 정도는 심한 정도가 아니니 HA분유 잘 먹이고 모유 수유는 끊을 필요 없으니 경과를 보자 하더군요. 엄마인 저는 더 이상 피를 볼 수 없었고 주의 음식을 먹지 않음에도 피가 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지난 토요일부터 모유 수유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일요일 금새 피가 줄고 설사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불은 젖을 버리기 위해 짜내며 또 한번 가슴이 미어지내요. 내가 그렇게 고집했던 모유가 우리 아기에게 독이 되었구나..모유를 늘리기 위한 나의 사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아직도 저는 내 모유가 아기를 아프게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여전히 알러지 유발 식품을 모두 끊고 짜낸 젖을 얼리고 있답니다. 정말이지 돌까지 먹이고 싶었고 아기를 안고 내 젖을 먹이는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어디 말할데도 없고 하여 끄적여 보았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작성자: 순신이맘, 작성일: 2014.02.17.)

2) 응원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응원을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나누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후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준 따뜻한 말들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 카페N 선배맘들의 받은 사랑을 이제 그녀 자신이 선배가 되어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응원이 그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기에, 그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자 하였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인생 선배’라는 그녀의 깨달음은 작은 울림이 되어 카페N 회원들과 공유되고 있다.

<제목: 따뜻한 말 한마디들 ㅎ>

올해, 아이 엄마가 되고나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와 관계없이 문득 제 마음을 다독여준 말들이 있었어요.

산후도우미에게 아기 씻기는 법을 배워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목욕을 시켰을 때, 옆에서 지켜만 본 산후도우미가

"아기도 장하고 엄마도 장하네요. 오늘 한단계 더 성장했네요"라고 얘기해주신 것과 애기 7개월에 간 목욕탕에서 때밀이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말랐냐는 질문에 모유수유하다보니 살이 빠졌다는 얘기로 시작, 이제 젖 그만 먹일때도 됐는데 왜 계속 먹이냐는 말씀에, 내년봄이면 복직해야해서 조금만 더 먹이고 싶다고하자

"부모 마음이 다 그런거예요"라고 하시던 말씀

그리고 며칠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시다 문득

"○○이 엄마, 그래도 올해 큰 일 했네!"라고 하시며 방긋 웃으시던 것.ㅎ

별거 아닌 말씀들이었는지 몰라도 순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나의 인생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올 여름 느닷없이 찾아온 이 카페에 쏟아놓은 제 이런저런 질문과 고민에 늘 따뜻하게 답해주신 ABC 선배 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ㅎㅎ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무리 같은 멘트를?^^;;;

그냥 연말이 되니 이런저런 생각하다 새삼 인사드립니다 ㅎ

모두들 굳밤 되시고요!^^

(작성자: 언젠가어떤날에, 작성일: 2013.12.23.)

그리고, 모유수유중인 어머니의 한 사람으로서 모유수유중인 어머니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지난 두 아이의 수유 경험담을 나누면서, 자신이 모유수유를 하는 이유를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을 들고 있다. 첫째 때 모유수유를 고집해서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둘째 때 우유병으로 모유와 분유를 주었던 후회스런 경험을 했던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슴으로 셋째에게 젖을 주고 있다. 글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아기의 얼

굴과 표정을 보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그녀는 모유수유를 끊지 못하는 이유로 이것을 꼽았다. 32시간째 깨어있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도, 그녀는 그렇게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의 모유수유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모유수유중인 어머니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제목: 비몽사몽이네요..>

현재 모유수유중인 맘입니다..

지금 거의 32시간째 깨어있는 거 같네요..

모유수유하는 맘들이 다들 그러시겠지만 어제도 12시에 수유후, 아기가 2시 넘어서 잠들고, 저는 뒤척이다가 4시,6시 반에 수유후 아기가 안고서만 잘려고 해서 계속 안고 있었고..

머리가 멍한데, 막상 누우니 잠은 안들고, 좀있다 큰아이 귀가 시간이 됐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아이때 젖 물리면 모든 아기들은 척척 빠는줄 알고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젖은 부는데, 아이는 못 빨고, 또 모유수우만을 고집하다가 아이는 아이대로, 저는 저대로 너무 고생해서, 둘째때는 분유와 모유를 아예 우유병으로만 먹였었네요..

그러가다 지금 셋째때, 둘째에게 모유 못 먹인게 나중에 후회스러워서 다시 모유수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잘 빨고, 저도 약간의 노하우(?)가 생겨서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잠 못 자고, 어깨, 손목, 허리는 마구마구 쑤시네요..--

그래도 내 품에서 꼬물거리면서 젖을 빨고, 오물거리는 입모양과 나를 빤히 쳐다보는 아이의 눈망울, 평온한 아이의 표정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또, 이게 마약처럼 모유수유를 못 끊게 하는 이유인것도 같구요..

그래서 저의 모유수유는 앞으로도 쭉~ 계속 될거 같네요..

모유수유중인 모든 어머니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작성자: 로미, 작성일: 2013.12.23.)

3. 소 결

카페N에서 조회되는 모유수유 관련 글들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들의 질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다른 어머니들도 경험한 적 있는 지 확인하려는 것과 자신의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선배맘들의 노하우(know-how), 즉,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카페N의 회원들의 반응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료맘과 이미 경험한 선배맘으로서 글쓴이의 니즈를 글을 통해 읽어내고, 글을 쓴 그녀가 원하는 반응과 듣고 싶었던 말을 댓글과 답글로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입장을 띠고 있는 한 어머니가 글을 올리면, 카페N의 구성원들은 글쓴이의 입맛에 맞는 댓글만을 작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페N에 풀어놓는 그녀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저 하소연과 푸념일 뿐이었다. '카페N'이라는 온라인 공간 안에는 아기가 더 이상 젖을 찾지 않을 때까지 지속되는 자연스러운 모유수유 관계와 어머니에 의한 일방적인 단유 이야기가 공존했다. 다시 말해서, 카페N에서는 서로 묻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비판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것에는 침묵했다.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논쟁'이 아닌 '타협'의 방식을 지향한다(KBS 공부하는 인간 제작팀, 2013: 310). 좋은 이웃을 자처고 있는 카페N의 구성원들은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을 중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특히, 댓글이나 답글을 적을 때, 본문의 글쓴이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회원간의 암묵적 금기[28] 사항이었다.

---

28) 2014년 7월 8일, '김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다람쥐이님 제가 폭력이 정당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올렸던 글들을 모두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그녀는 징징거리는 아이를 홧김에 침대에 던진 후, 그녀 자신이 미친 것 같다면서, 속상하고 눈물난다고 카페N에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람쥐이'가 그런 그녀를 향해 공개적으로 글을 썼다. 그녀의 글을 읽고, '김루'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었다면서, 대놓고 질책하는 '다람쥐이'의 글은 자신의 상처난 곳을 후벼 파는 것과 같았다고 했다. 친구같던 카페가 무서워졌다는 '김루'는 더 이상 카페N에 글을 올리고 싶지 않

카페N은 비교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카페 소개에서 밝히고 있는 '정보 공유'의 실체는 한 회원이 특정 입장을 고수한 상태에서 궁금한 것을 글로 올리면, 다른 회원은 자신이 이미 겪은 일 또는 알고 있는 답을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카페N에 쏟아냈다. 그리고, 글쓴이는 그 중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취사선택했다. 또한, 정서적 공유 측면에서도, 그녀들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응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글쓴이 본인이 누구보다도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카페N의 가치판단의 중심은 글쓴이였다. 구성원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페N에서 '모유수유'라는 특정한 소재에 대해 찬반의 글이 공존한다. 그리고, 글쓴이가 특정 입장을 취하는 글을 올려도 그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조화'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 그저 '침묵'하는 이들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카페N의 현실은 이 카페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마지심슨'이 쓴 글과 많이 닮아있다. 그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수유 권장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세 아이 모두 16개월이 될 때까지만 젖을 먹였다. 또한, 그녀는 밤중수유 중단을 고민하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수유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면서도, 자신이 아는 지식, 즉,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모유수유기간은 2년'이라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의 글에서도 그녀는 애착육아를 지향하면서도, 육아에 정답은 없다면서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카페N의 자체 DNA, 즉,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논쟁이 아닌

다고 했다. 이 글에 대해서도 그런 그녀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마음 풀고, 오해도 풀고, 카페를 떠나지 말라는 내용의 댓글이 23개나 달렸다. '라니맘'도 '김루'의 글에 댓글을 달아, "마주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보니 시시콜콜 내 입장을 다 전달할 수 없어서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는 외모나 목소리, 어법이나 태도 등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묵시적 학습의 과정이나 비언어적 학습지원행동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기술한 바 있다(정민승, 2001: 298).

한편, '다람쥐이'도 답글로 자신의 원래 뜻은 '김루'에게 상처주려던 것이 아니었다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결국 '김루'도, '다람쥐이'도 기존에 올렸던 글을 모두 삭제했다.

침묵으로 포장한 '조화', 그 중심에는 카페N을 탄생시킨 '마지심슨'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페N은 구성원간의 합의된 가치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글쓴이 각자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즉,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공개적인 반응은 글쓴이들이 원하는 바를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계, 더 나아가 그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그저 하소연과 푸념에 그치게 하는 것은 '정보 공유'와 '좋은 이웃'을 표방하고 있는 '카페N'의 민낯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적 가능성, 즉, "끝없는 자기 순환, 자기 독백"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정민승, 2002: 115).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강조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개념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이는 '제한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나의 이웃이 동일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한, 나는 그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다(김하자, 정승교 역, 1992: 276). 이러한 식의 자유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카페N에는 "화자와 화자의 주장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 사이의 교환 가능성(표재명, 김봉미 역, 2001: 569)"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Ⅳ. 이구동성(異口同聲)

임신한 후 자신의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한 기쁨과 두려움도 커져간다. 자신과 탯줄로 연결된 아이를 이제 곧 이 세상에서 만난다는 기대와 동시에 출산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곧 현실이 될 출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머니가 되어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서, 어머니들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환상과 자만이 깨어지고, 불안함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어머니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현실이 그 동안 책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듣고 보았던 것과 사뭇 다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책 속의 죽은 지식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겪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초보 어머니가 좀 더 성숙한 어머니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개인적 경험 차원에서 살펴본 어머니들의 수유 이야기는 개별적 체험을 모은 것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수기공모전에 응모한 글들 중에서 '엄마들의 수유실천에 도움'을 주려는 목표하에 선별된 것이다. 공개적으로 젖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젖'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를 많이 민망해하는 현실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용기를 낸 그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걸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젖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 환상과 자만이 깨짐

모유수유를 처음 하게 되는 어머니는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보아왔던 이미지들과 전혀 다른 실상과 마주하게 된다. 모유수유가 그리 단순하고 또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2010년 12월 23일 복덩이 민규가 내게 오기 전까지 모유수유는 그저 여성이 엄마가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였다. 모유수유 권장 광고나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기만 하면 되는 단순하고도 간단한 일인 줄 알았다.
>
>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신적 육체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하는 고난도 일이었다. 첫아기 엄마라면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모유수유 자세부터 언제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나름 모유수유교육도 받으면서 동영상 시청도 했건만 내 뱃속에서 갓 나온 자그마한 아이를 안는 일은 손 떨리게 어려웠고, 그 작은 아이의 작은 머리를 내 가슴에 데려오는 일은 더 어려웠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3: 59).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어머니의 표현 그대로 몸소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주저없이 선택한 모자동실. 하지만, 모자동실에서 그녀가 경험한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의 전개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전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던 것인지를 몸소 확인하게 된다.

> 병실로 옮기면서 모자동실을 선택했다. 얼마나 좋은가. 아이와 같이 있으면 수시로 배고파 할 때마다 젖을 물릴 수 있고. 주저없이 택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신생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젖을 물려도 울고 몸은 너무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신생아실로 내려 보내고 아이가 젖을 찾을 때마다 전화를 부탁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03).

내 젖이 나오지 않았다. 출산한 엄마 몸에서 젖이 나오지 않는다니... … 출산 전 다녔던 모유수유강좌나 예비 맘을 위한 어떤 강좌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불안하고 초조했다. 젖을 못 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다들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스스로가 위로가 되지 못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31).

이러한 양상은 경산모[29]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때 완모[30]를 했기에 둘째도 당연히 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모유수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엄마는 나쁜 엄마라고 여겼던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닫는다. 첫째 때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둘째의 모유수유 경험을 통해, 그녀는 그 동안 가졌던 생각들이 깨지고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첫 아이 출산 후 3년 만에 두 번째 임신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극심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 7주 만에 유산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충격으로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 직장도 그만 두고 집에 꽁꽁 숨어 있던 때 3개월 만에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얻은 아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주고픈 선물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모유였고 첫째 완모를 했으니 둘째도 당연히 완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유산 직후 얻은 아이, 거기에다 유산 후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임신 열 달 내내 몸이 좋지 않았고 출4산이 다가왔는데도 첫째 때와는 달리 젖 도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때 워낙 모유가 넘치고 넘쳤던 지라 걱정도

29) '경산모'란 초산모에 대비되는 단어로, 출산 경험이 2번 이상인 어머니를 뜻한다.
30) '완모'란 '완전모유수유'의 준말이다. 아기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엄마젖만 먹이는 모유수유, 엄마젖과 분유를 섞어서 먹이는 혼합수유, 분유만 먹이는 분유수유,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아기가 일정 시점 이후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완모'라는 표현은 이유식을 전혀 하지 않고 엄마젖만 먹인다는 뜻이 아니라 '분유가 아닌 엄마젖을 먹이는 것'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다.

잠시 이내 '난 무조건 완모할 수 있어'라고 자만했지요.

둘째도 역시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제왕절개를 했고 첫째 때처럼 그 다음 날 모유수유를 하러 가겠다고 하니 간호사분들이 저마다 말리시더군요. 몸도 힘들고 젖도 돌지 않을 것이라구요. 하지만 저는 첫째 때도 그랬다면서 자신만만하게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기가 아무리 빨아도 젖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면서 입원한 내내 한 시간 간격으로 찾아가서 젖을 물리고 유두에 피가 날 때까지 물렸는데도 젖은 아주 약간 나올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척추마취 후유증까지 와서 걷기조차 힘들어져 결국 우리 아기 초유도 제대로 못 먹고 분유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다는 걸(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80).

예전에는 엄마들이 젖이 안 나온다고 하면 첫째 때 완모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반문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 처지가 된 셈이다. 즉,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몸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가족과 함께 노력했고, 출산 후 석 달 만에 그녀는 둘째 아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모유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녀 자신이 둘째 출산 후 그러했던 것처럼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엄마들도 있다는 것과 가족 모두의 노력을 통해 결국 둘째 아기도 완모하게 된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을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은 기존에 자신이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을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상황에서도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격려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편견, 즉, '엄마는 당연히 모유수유를 해야 하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엄마는 나쁜 엄마'라는 생각이 사라졌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유수유

관련 책을 들여다 보고 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유수유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가슴마사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아파도 젖을 물리는 것 또한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짜 내어도 30~40ml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모유가 50ml, 60ml 점차 늘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씩 희망이 보일수록 온 가족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은 잠을 푹 자야 젖이 잘 돈다면서 퇴근 후에는 수유시간 외에는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쉬게 해 주었고 다섯 살 난 큰 아이는 아직 어린데도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주변 분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두 도와주신 덕분인지 출산한 지 석 달이 된 지금은 아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모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엄마는 당연히 모유수유를 해야 하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엄마는 나쁜 엄마라는 것-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엄마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동안 다른 엄마들이 모유가 안 나온다고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귀찮아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다구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 젖이 안나오는 엄마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81~82).

2. 정보 부족 vs 정보 과잉

1)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

고립된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정보 부족을 호소하면서, '나만 그런가' 내지는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

게 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머니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아낸 답을 몸소 자신에게 실험해 보기도 한다.

> 편한 자세로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왼쪽 젖을 많이 물리게 되어 오른쪽 젖양이 왼쪽보다 훨씬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젖이 시간이 지나도 거의 차는 느낌이 없고 젖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왼쪽 젖만으로 수유를 했는데 다행히 아기의 몸무게나 키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주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보니 가슴이 심하게 불균형하게 망가져 있어 우울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모유수유학회 사이트에 들어가 같은 사례가 없나 찾아보니 양이 적은 쪽부터 항상 먼저 물리고 수유를 하라고 해서 오른쪽이 나오지 않아도 항상 수유할 때 먼저 물리고 수유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더니 한달이 지나니 약간씩 균형을 찾아가더군요(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99).

좋다고만 하면 무엇이든지 시도라도 해보자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기에, 그녀의 그러한 노력이 때론 눈물겹기도 하고, 다소 무모해 보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식의 떠도는 이야기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어머니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줌으로써,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 모유수유 관련 책,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모든 곳에서는 자주 자주 젖을 물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지만… 아이도 나도 너무나 힘들었다. 계절은 한여름이라 수유를 하려고 아기를 안고만 있어도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자연분만으로 인한 회음부의 상처까지 더운 날씨라 더디게 아물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한 방울의 젖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 유축기 강도를 높여서 양쪽 유두는 모두 헐어서 피가 나고 아물 틈도 없이 또 젖을 물려야 했고, 손으로 젖을 쥐어짜느라 손가락 관절도 많이 아팠다. 모유수유 전문가를 찾아 자세도 바로 잡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았

다.

책을 보니 아기에게 젖병을 빨리는 것이 모유수유의 실패가능성을 높인다 하여 컵이나 숫가락으로 분유를 먹이라고 해서 밤에도 자다 일어나 그 일을 해야 했다. … 팥물이 좋다길래 매일 팥물을 5리터는 마신 것 같다. 그 더욱 여름에 뜨거운 미역국을 새벽에 자다가도 일어나 한 그릇씩 먹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미역국을 떠먹다 혼자서 펑펑 울기도 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01~202).

2)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정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도 있고, 단순한 개인적 의견으로 경험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아기와 함께 하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인 초보 엄마는 단순한 정보 수집만으로도 위안을 얻기도 한다.

몇 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지, 얼마 동안 먹여야 하는지,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젖양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말이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에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훌륭해! 대단해! 감탄하며 정보를 수집하였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14).

그러다, 그저 쉽게 믿고 의지했던 정보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 검증되는 순간,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 뒤 그것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자신의 몫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온전히 져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 그녀들은 나를 위해 미리 준비된 맞춤형 지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한 시간이 넘도록 젖을 물고서는 식사

를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싶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가슴을 내려다보니 가슴은 이미 차오를대로 차올라 성이 나 있었다.... 출산 초기 때와 달리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젖몸살은 나의 몸 상태를 바닥으로 내겨놓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남편의 도움을 받아 뜨겁게 데운 찜질팩을 수건에 둘둘 감아 돌처럼 딱딱해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비벼본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알아챈 남편은 후다닥 컴퓨터로 달려가 인터넷 검색을 한다. 얼.음.찜.질.

젖몸살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얼음찜질이란다. 순간 머릿속에는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해야 한다고 알려줬던 얼굴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간다. 아~야속한 님들아...(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15).

3. 신뢰와 믿음 그리고 자기확신

1)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선별

출산을 통한 새 생명의 만남, 그리고 그렇게 만난 아기와의 내밀한 교제는 그 자체로 어머니에게 새로운 경험이지만, 이것은 어머니가 경험하던 기존의 관계들이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오롯이 아기와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함을 쌓는 그 순간, 어머니는 아기 외에 다른 관계들과의 멀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단절의 상황에서,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어머니들은 새로운 커뮤니티에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타인과 경험에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바라보게 된다.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백일 넘게 아이와 둘이서 좁은 집에서 씨름하면서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였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요즘이기에 방법이 있는데 모르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이의 울음과 함께 맞부딪치는 곤혹스런 상황마다 '나만 그런가'하는 고립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인터넷으로 검색되고 카페

에 올라오는 글들이 설레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6~27).

출산 이후 바깥출입이 여의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앞서 경험한 선배 어머니들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만난 그녀들은 그녀의 주변에서 그리고 그녀가 처한 현실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격려와 지지를 그녀에게 보내주었고,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내게 된다.

'먼저 겪어 본 선배 엄마들'의 살아있는 경험, 직접 해 봄으로써 얻은 지식을 믿고 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통한 재확인 과정에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고자 했다.

숫자로 표시되는 아기의 몸무게가 어머니의 양육 성적표인 것 마냥 비춰지는 현실에서, 엄마젖을 먹고 자라는 아기는 분유만 먹고 자란 아기에 비교했을 때 단지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기일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젖을 먹이는 것은 자신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아서 아기의 몸무게가 제대로 느는 것을 막는, 고집스런 어머니의 행동으로 비춰질 뿐이다. 하지만, 이미 겪어본 선배맘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람있는 일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그녀를 응원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과 아기를 둘러싼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온통 뭐 하러 모유를 고집하냐는 의견이었다. 아기 몸무게가 느는 게 좋지 않냐고. 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처음부터 엄마젖을 고집할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싶기도 했다. 모유수유한 아이는 분유만 먹고 자란 아이에 비해 무게가 조금 덜 나간다고, 책으로도 확인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선생님이 던지신 한 마디는 견뎌내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게 사실이었다. 나름 의견을 같이 하

던 남편마저 그 한 마디에 돌아섰으니....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나에게 힘이 되어 준 것은 트위터의 이미 '먼저 겪어 본' 엄마 친구들이었다. 출산 이후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노트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다른 엄마들의 인터넷 카페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다. 내가 트위터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모유수유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가족들마저 이런 말을 하네요'하며 마치 모자장이가 대나무 밭에 소리 지르듯 트윗을 날리면, 먼저 겪었던 경험이나 위로 혹은 미처 몰랐던 정보들이 멘션으로 날아왔다. 보람있는 일이니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과 함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95)

어머니들은 모유수유를 비롯한 육아정보들을 여러 출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한다. 하지만, 특히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아기를 키워내는 모유수유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앞서 겪은 어머니들의 경험담을 신뢰했다. 즉, 자신의 몸으로 아기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진 어머니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뿐인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검증된 지식에 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글로 배운 육아상식은 얼마 가지 않아 나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그건 바로 다섯 달 먼저 아이를 낳은 친한 친구가 4시간마다 젖을 먹이라는 글을 보고 따라 했다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이론에 가까운 육아상식들은 참고만 하고 몸으로 익힌 경험담을 우선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14~215).

이미 앞서 출산을 경험한 바 있는 어머니에게도, 다른 어머니들의 경험은 의미있는 것이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데, 어머니 자신과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의 개별적 모유수유 경험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첫째와 다른 수유패턴을 보이는 둘째에 대해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수유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맘뿐 아니라 전문가의 '말씀' 덕분이었다.

> 둘째의 경우 1회 수유시간도 짧고, 수유간격도 좀 짧은 편이라 현재는 고민인데, 모유수유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아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라고 전문가를 비롯해 선배맘들이 다들 말씀하셔서, 크게 걱정 안하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무조건 수유를 시도 한답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43).

앞에서 보듯이, 어머니들이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현실을 모르고 그저 말뿐인 이론만 내세우는 전문가보다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경험한 선배맘들의 이야기가 더 믿을 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배맘들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고, 아래와 같이 어머니들이 흔히 겪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와 모유수유전문가 등을 찾아 가기도 한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어머니 자신의 몸과 아기의 먹을거리를 담보로 한 것으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 그 와중에 갑자기 왼쪽가슴 한부분이 딱딱해져왔다. 가슴 울혈이 생긴 것이다.... 아이가 젖을 물때마다 "악"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 너무 아프면 타이레놀은 먹어도 된다는 소리에 약을 먹어가며 2주를 참았다.... 삼주를 참다 병원에 갔다.... 초음파를 통해 본 가슴에 달걀만 하게 고름이 차 있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단다. 그리고 입원을 또 해야 된단다.... 그동안 참고 물린 결과는 참 잔인했다. 수술 부위에서 젖이 줄줄 세워 나왔지만 그냥 물렸다.... 참는 게 정답이 아니다.... 힘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더 수유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30-132).

> 병원을 찾아 문의 했지만, 다른 시의 병원으로 가라는 말에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갔고, 소위 모유전문가라는 분의 막무가내 유축과 바늘로 젖

꼭지를 따내는 상황으로 나는 거의 초주검이 되었다. 아기를 낳을 때 보다 더 한 고통이었고 더 많이 울었다. 그런 나에게 모유전문가는 말했다.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엉엉 울며 말했다.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 않다고, 젖을 말리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의사는 젖을 말리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급적 아기에게 젖을 수유하라며 나를 다독였다. 엄마도 주위의 간호사들도 젖이 너무 아깝다며 나를 말렸다. 나는 정작 너무 무섭고 싫은데 주위에서의 만류로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 모유수유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젖몸살 없이 젖을 말릴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했다.... 약을 먹고 젖을 말리면 좋지 않다는 말에 다시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찾았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39-140)

2) 믿음

눈에 보이는 것과 숫자로 표현되는 것에 익숙한 세대에 있어서, 분유병이 아닌 가슴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낯설고 의문투성이 과정이다. 왜냐하면, 분유병으로 먹일 경우에는 아기가 먹은 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젖을 물리는 경우에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균 권장량과 같이 어머니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수치화된 기준이 오히려 어머니들을 난감한 상황에 빠트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 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어머니 자신과 자신의 아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우선 어머니 자신을 살펴보면, 이는 자신의 몸이 아기가 필요로 하는 젖을 충분히 만들어 낼 거라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젖은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더 나아가 어머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스스로의 굳은 다짐이기도 하였다. 또한, 아기가 자신의 젖을 잘 먹어 줄 것이

라는 믿음과 어머니 자신과 아기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이런 저런 고비를 넘기면서 모유수유에 성공한 비결은 단연코 믿음 이었다. 모유가 충분하리라는 믿음, 아기가 잘 먹어 줄 것이라는 믿음, 내 모유는 아기가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이렇게 믿고 있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렸고 점점 모유수유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산용품 목록에 올라가 있는 젖병과 모유준비를 과감히 생략했던 것. 나와 아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결국 힘들었을 때에도 모유수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었다.
> 물론 젖병으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얼마나 먹는 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아기들이 먹는 평균 권장량을 제대로 먹고 있는 지 궁금했다. 하지만, 아기의 몸무게가 충분히 늘고 있었고 아기가 보채지 않고 잘 놀았기 때문에 엄마 젖으로 양질의 영양을 받고 있으리라 굳게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54).

>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셨으니 아기가 먹을 모유도 당연히 주실 거라는 믿음. 아무리 좋은 분유라도 내가 잘 챙겨먹고 내 몸에서 나온 모유가 가장 영양가 있을 거라는 믿음. 아이에게 미안해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써 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가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05).

어머니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하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바탕은 막연한 맹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는 믿음이다. 부족하더라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아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와 아기는 교감하면서,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커 나간다.

> 인터넷을 검색하며 마주치는 무수한 말들…… 정보로 인해 생성되는 마음. 불안. 지금 불안을 넘어서는 것은 무수한 말과 정보들이 아니라 마

음 속에서 솟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연한 맹신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다하고 방법을 찾았다면 믿고 하루하루를 아이와 교감하며 보내는 것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8)

배가 많이 고픈 건지 아니면 내 손길이 불편한 건지 얼굴이 빨개지고 땀 흘리면서 우는 모습에 당황해서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기랑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조금씩 체득하게 되었다. 아기가 더 젖을 잘 무는 자세, 각도, 배고파서 먹을 때의 그 느낌 등등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책을 봐도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것! 수유가 바로 그랬다. 아기가 잘 먹으면 기뻐하고 잘 못먹는 것 같으면 걱정하는 날들이 지나가면서 아기와 나는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고 있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59~60).

3) 검증을 통한 확신

어머니의 젖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유보충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부족한 모유를 분유로 보충에 그치지 않고, 점차 분유량을 늘려 완전 모유 수유로 넘어가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물릴수록 젖량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수시로 우는 아기를 보면서 혹시라도 배고파서 우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들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한다. 거기에 우는 아이에게 분유라도 배불리 먹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강요와 배고픈 아기에게 분유도 주지 않고 굶긴다는 식의 비난이 더해지면, 어머니들은 자신이 아는 바를 굳게 믿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어머니 자신이 계속해서 젖물리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렵사리 증가한 젖량이 아기가 필요로 하는 양에 못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했던 젖량 공급량이 아기의 필요로 하는 수요량과 맞춰지는데 수개월이 시간이 걸릴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젖이 부족한 것 같다고

분유 보충을 하다보면, 아기는 그 만큼 엄마젖을 덜 물게 되고 그 만큼 어머니의 젖생산도 감소한다. 부족한 젖량을 보충할 목적으로 시작했던 분유수유로 인해, 어머니는 그렇게 완전분유수유의 길로 서서히 들어서게 된다. 즉각적인 분유 보충 대신, 엄마의 젖은 아기가 필요한 만큼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는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 모유수유를 포기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젖을 물릴수록 모유량이 는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젖을 물렸더니 모유량이 점점 늘어서 넉넉치는 않아도 5개월쯤 되어서는 아기가 모유만으로도 배는 채웠구요, 6개월 들어서서 이유식을 하면서부터는 모유만 먹이고도 양이 충분하더라구요(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08).

> 모유는 필요한 만큼 나온다. 정말이다. 이것을 알기까지 수개월이 필요했고, 그 동안 나와 아기는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나를 의심하는 순간, 아기를 힘들게 했다. 출산 후 첫 모유수유부터 여러 모양의 노파심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함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혼합수유와 아기가 결사적으로 거부하던 젖병을 거부하던 시간, 그리고 안정적으로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지금에서야 나는 배웠고 깨달았다. 내 자궁에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아기는 나의 일부였음을 간과했다. 나의 젖은 아기가 태어난 후 태반이 나오면서 만들어졌고, 그 태반 역시 아기가 머문 곳이었다. 내 몸은 출산 전 아기에게 제일 좋은 곳이었고, 출산 후에도 아기에게 제일 좋은 것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지금 내 몸은 아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젖을 만든다. 그리고 아기는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젖을 빤다.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처음부터 충분했을 것이다. 몸무게 2.7kg의 아기가 제 양을 채우기에 내 젖은 말랑말랑했어도 그 양은 넉넉했을 것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69).

4.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있고 보람찬 모유수유

1) 인고의 시간 없이 줄 수 없는 모유

모유수유는 어머니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하는, 그야말로 힘든 시간이기도 하다. 모유수유 초기에는 하루에 12번도 젖을 물리기도 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수면부족과 신체적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달라는 아기의 요구로 인해,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젖을 주는 기계'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마음마저 힘들어지기도 한다.

> 새벽에도 아이가 울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기계처럼 젖을 물려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아이가 젖을 무조건 젖을 달라 울면 무조건 젖을 물려야 하는 일이 힘들었고, 거기에 시장이라도 가서 아직 물건도 사지 않았는데 젖 달라고 아이가 보채면 젖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한참을 헤매다 집으로 가거나 양해를 구하고 가게의 한쪽 구성에서 젖을 물려야 하는 것들이 때로는 화도 나고, "정말 나는 젖을 주는 기계 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9).

한편, 모유수유 과정은 어머니에게 '기쁨과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쏟아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사랑은 어머니 자신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복으로 표현된다.

> 모유수유를 하는 과정과 시간은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 비록 잠도 잘 못자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잠깐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쏟아지는 시간들이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4~15).

‘모유수유’는 잠깐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과정이며, 어머니가 아기에게 주는 ‘모유’는 그 과정상에서 얻어진 결과물이자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 이 잠깐의 힘든 시간은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몇 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체험을 통해, 모유수유는 어머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신의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 인고의 시간 없이는 쉽게 아이에게 줄 수 없는 모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지만 오로지 그 시간을 견디지 못 해서 포기하는 엄마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잠깐의 힘든 시간들을 참아내면 아이에게는 더할 수 없이 귀한 축복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테니까(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06).

모유수유의 기쁨은 ‘지금 이 순간’을 아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젖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함께 하는 그 순간은 아이와 함께 하는 경험이자 행복이며, 둘 만의 소중한 추억이 된다. 자신의 몸이 만들어낸 젖으로 키운 나의 아이가 날마다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기쁨이자 보람이기도 하다. 예전에 없던 속눈썹이 생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젖을 먹던 아기가 이제는 조금씩 여유를 부리면서 젖을 먹을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 곰순이한테 젖을 물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고 매일매일 그 시간동안 젖을 물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꼭 쥐고 있는 손이 어느 새 토실 토실 살이 붙는 것을 보고,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빨던 얼굴이 어느 새 젖을 빨다가 눈웃음을 지어 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과 부쩍 자라난 몸이 내가 젖을 물려서 키워낸 것 이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다.
>
> 가슴에 품고 찬찬히 살펴보다가 갓 태어났을 때는 안 보이던 속눈썹이

길게 자라난 모습에 감탄하는 순간, 젖을 물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 젖 맛있니?'하고 물어봤는데 물고 있던 젖을 퉤 하고 뱉고 물끄러미 쳐다보다 다시 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빨던 황당한 순간, 젖이 모자란다고 흥흥 보채며 빨다가 고개를 돌렸다가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순간, 혹은 밤에 젖을 물린 채로 같이 기절한 듯 자 버린 것을 아침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되는 웃기는 순간, 그 시간들이 어쩌면 모유수유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이런 경험을 아기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비록 아기는 나중에 기억을 못 할지라도- 나에게는 모유수유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95~96).

2) 엄마젖을 먹어주는 고마운 아기

아기는 신체적으로 나약하지만 정서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유수유에 있어서, 아기는 능동적인 주체로 그 어떤 누구도 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어머니를 치료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또한, 젖몸살과 같이 어머니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딱딱하게 굳어서 먹기 힘든 상태인 어머니의 젖가슴을 들이대도 힘껏 그 젖을 먹어주는 아기는 어머니에게 고마운 존재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기와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일방적으로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젖을 먹어주는 고마운 존재로 아기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얼음찜질을 한 후 양배추를 브래지어에 넣고 한숨을 자고 일어나니 거짓말 같이 젖몸살이 풀린다. 결국 미리 유축해 둔 젖을 먹고 잠든 아이를 깨워 '미안해. 희천아. 엄마 좀 도와줘.'하며 부푼 가슴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젖꼭지를 손으로 더듬어 찾아 아이에게 물린다. 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하자 커다랗게 뭉쳐진 실타래에서 실자락이 한 올 한 올 풀리듯 뭉친 가슴이 스르륵 풀린다. 아~고마워. 희천아!(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15~216)

그리고, 수유 기간 동안 최대의 고비인 젖몸살이 중간에 와서 정말 당황했었어요. 출산직후 처음에도 없던 젖몸살이 아이가 백일 정도 되었을 무렵 엄청 심하게 왔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구요. 마사지를 해줘야 풀린다는데, 신경이 곤두서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기 일보직전 이였으니, 옆에서 남편도 안절부절 했었죠. 그런데, 젖몸살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아이에게 수유를 강행하는 거에요. 새벽에도 너무 아파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중간에 잠에서깬 아이에게 무조건 수유를 했죠. 아프기도 하고 젖은 딱딱해서 아이가 빨기에도 너무 버거웠을 텐데, 그래도 무조건 물렸어요. 정말 다행인 것이 아이도 정말 있는 힘껏 젖을 먹어줘서, 아침이 되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젖몸살이 풀렸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너무 고마웠구요. 젖이 안나오면 아이가 울고 불고 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젖을 물어준 아이가 너무 대견하더라구요(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44~45).

3) 끊임없는 대화로 함께하는 여정

출산 이후 아직 아기의 이름이 없을 때, 아기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린다[31]. 자신의 이름을 빌어 불려지는 아이의 존재와 함께, 그녀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는 호칭이 붙는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모유수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심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 어머니로 성장한다. 그렇게 아이라는 존재를 통해, 여자에서 어머니로 거듭나게 된다.

모유수유를 한지 7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다.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수유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수유가 힘들다 한 적이 없다. 젖을 주면 빨고 분유를 주면 먹었다. 젖이 부족하다 생각한

31) 예를 들어, 어머니의 이름이 '가나다'라면, 아기는 '가나다' 아기로 불린다.

것도 나였고 수유가 힘들다며 포기할까 생각한 것도 나였다. 오히려 아이는 젖을 빨면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교적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좋은 병원에서 쉽게 젖을 물렸지만 부족하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의심한 쪽은 항상 나였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33).

모유수유는 출산 이후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해준 힘이었다. 정말 수유하는 동안 내가 더욱더 어미 된 자로써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의 젖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아이의 생명력에 경의함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누군가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가. 사실 어머니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어머니로 만들어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장 강한 것은 아닐런지. 그래서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5~16).

사실 모유 수유하는 것이 무조건 쉽고 편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아이와 나. 순전히 두 사람이 맞춰가는 일이 모유수유이기에 주변사람들의 조언은 참고 할 수 있지만 오롯이 내 느낌과 아이의 몸짓, 표정 등을 보면서 체득해 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대단하다. 내 몸에 아기가 자리잡고 힘든 입덧도 이겨냈고 배가 점점 불러와 다리는 퉁퉁 붓고 숨에 가빠오는 시기도 이겨냈고 하늘이 노래지는 산고의 고통도 이겨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숨겨져 있고, 아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모유수유? 그것도 우리와 아기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점들을 이겨내면 분명 우리는 한 층 더 성숙한 엄마가 되어 그 누구보다 아기의 표정변화와 아기가 내는 소리에 더 잘 반응하고 응답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있을 것이다. 바로 이게 아이와의 올바른 애착관계가 아니겠는가!(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61~62)

엄마의 젖만을 원한다는 아기의 단순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조차도, 초보 엄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기가 분유가 아닌 엄

마젖, 그리고 우유병이 아닌 엄마의 따뜻한 가슴을 원한다고 온 몸으로 어머니에게 표현해도, 초보 엄마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미처 읽어내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는 난감하고도 어려운 시험과도 같은 고비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녀와 그녀의 아기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아기가 말하고자 바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분유수유이다. 처음 아기가 거부 없이 젖병 젖꼭지를 물고 분유를 먹었던 것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랬거니 생각했던 오해. 즉 아기의 행동을 부모가 멋대로 판단해 내 아기를 힘들게 했다. 아기의 표현은 단순하나 명확했다. 젖병이 싫은 것이다. 아니, 엄마의 젖꼭지가 아닌 다른 것은 싫은 것이다. 어른은 그것을 몰랐다. 나는 성급했고 건방졌었다. 내가 낳은 아기이니 내 생각이 온전히 옳다 했다. 그러나 그런 내 오만과 이기심으로 아기는 힘들고 지쳤다. 그 날 이후, 나는 절대로 분유를 먹이지 않는다. 시도도 하지 않는다. 혹여 유축이라도 해서 젖병을 물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
> 출산 후 5개월이 지났다. 나와 내 아기는 평온하다. 지금의 나는 아기가 배고픈지, 졸음이 오는지 하는 울음을 구별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의심 없이 모유를 주고 있다. 내 젖의 양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한 달에 한 번 씩 찾는 병원에서 재는 몸무게와 키도 평균에 웃돈다. 잘 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거면 됐다. 나는 두 시간에 한 번씩 주기적인 수유를 하고 있고, 아기가 배변활동을 한 후나 놀고 난 이후 목마름을 대체하기 위해 수유를 한다. … 결국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린 성급한 결론이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이다. 양이 적다는 의심으로 혼합수유를 계속했다면 내 모유는 점점 줄었을 것이며, 아기에게 빠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것이다. 내 모유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져 불안감으로 시작했던 분유수유는 답이 아니었다. 그렇게 아기와 나는 온몸으로 고통 속에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지금 아기가 원하는 대로 의심 없이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68~70).

아기뿐 아니라, 어머니는 의료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 비록 그들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또 이를 번복할 지라도 말이다. 전문가조

차도 확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각종 전문의들이 날마다 자신의 아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1.23kg. 40cm. 임신 27주 5일만에, 세상에 나온 작은 노트만한 아이. 어머니는 자신의 첫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던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한 번 잠을 잊은 철인이 되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주 연구 담당의사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강력히 주장한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한편, 의사들도 못한 것을 어머니인 그녀가 해 주었다고 하면서, 그들도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며칠 후 간호사가 나에게 모유를 다시 권장한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여나 거부할까 걱정하며 거듭 권장한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퇴원 하루를 앞두고 … 퇴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한다.... 검사 결과는 CMV 감염이라고 한다.... 헤르페스의 일종으로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에게 번식되는 비루스로 미숙아나 노인, 병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 한다.... 모든 담당의사들이 와서 날마다 초긴장 가운데 검사한 결과, 모유를 통해서 감염되었다고 한다.... 모유를 수유하지 못하도록 중지령이 내렸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주 연구 담당의사는 아이가 이미 CM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이고, 모유수유를 통해서 다니엘이 성장하는 과정에 갖게 되는 면역성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계속 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각종 전문의들이 날마다 와서 다니엘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모여서 의논하였다. 몇몇 의사들은 다니엘에 대한 연구논문까지 쓸 정도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몇 번이고, 모유수유를 해 주어서 자기들에게는 절대적인 치료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감염위험을 두려워해서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은 후에 더 많은 감염에 노출되도록 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절대적으로 권장한다고 하였다.... 의사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6개월간 모유수유를 해 준 것에 거듭 감사하다고 하였다. 자기들이 해 줄 수 없는 60 -70%의 치료를 엄마가 해 준 것이라 한다. 참으로 생명은 신기하다. 매끼를 몇 ml 안 되는 모유만을 마시면서 생명다운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그 누구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귀한 보물들을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한 엄마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내 몸 속

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모유가 사랑하는 생명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값진 재산이 아닌가. 신기한 비밀이 아닌가(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3: 113~116).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젖을 먹이던 어머니들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녀들은 “계속 젖을 먹일 것인가? 아니면, 젖을 끊고 분유를 먹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개인 경험 차원의 연구사례로 선정한 수기집에 워킹맘으로 등장하는 그녀들은 나오는 젖을 억지로 말리는 것 대신, 계속해서 젖을 먹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아기에게 계속해서 젖을 먹이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지만, 그녀들이 선택한 방법은 달랐다. 그녀들은 점심시간마다 아기를 만나서 아기에게 직접수유하기, 화장실에서의 유축하기, 회사에 수유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실천 방법을 선택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수유를 중단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한 어머니는 엄마젖 아니면 거부하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수유데이트’라는 묘책을 내었다. 당초 유축을 하려고도 생각했었으나 유축을 할수록 젖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점심시간마다 아이를 데리고 회사로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점심시간에도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리면서 기존에 유축으로 인해 줄었던 그녀의 젖량은 늘어났다. 그리고,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귀한 점심시간을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기에게 젖을 주는 시간으로 약 5개월을 할애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출근을 하고 난 뒤였어요. 집에서는 젖을 물리면 되었지만 유축을 하기엔 양이 턱없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부탁 했어요. 집도 그리 멀지 않으니 점심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고 회사로 와 달라고… 저희 엄마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전 매일 점심시간 마다 차 속에서 짧지만 행복한 아이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주일 정도를 점심때에도 젖

을 물리니 다시 젖이 돌았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중간에 짬 내어 아이를 보는 게 좋아서 이유식을 잘 할때까지, 근 5개월간을 그렇게 점심 데이트를 했습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96-197).

그리고, 호텔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한 한 워킹맘은 불어오르는 젖을 짜내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화장실에서는 유축기로 젖을 짜내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화장실 밖으로 새어나오는 낯설은 유축기 소리로 인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자신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설명하기에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워킹맘들이 직장 복귀 후에도 계속해서 젖먹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서울 호텔에서의 교육일정이 잡히게 되었다.... 교육 온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서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는 일에도 유축기 소리도 좀 난처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이래서 직장맘들이 모유수유를 하기가 어렵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03).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유축'은 비단 기존 근무지를 벗어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초 근무하던 곳에 수유실과 같이 별도의 공간이 없을 경우, 빌딩 내 이용이 뜸한 화장실은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기도 한다. 허나, 그곳도 한가한 시간의 틈을 찾아야 가능한 것이었다. 유축하는 데 총 평균 40분이 소요된다는 한 어머니는 출산 휴가 이후 아기가 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매일 화장실에서 유축을 했다고 기술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마젖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에서 유축하는 그녀였지만, 여성 휴게실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유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서 아기에게 줄 젖을 짜내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던 그녀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그저 '회사 화장실이 깨끗했다'는 점뿐이었다.

> 점심시간 무렵 가슴은 탱탱 불어서 젖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후다닥 점심을 먹고 빌딩 내 가장 이용이 뜸한 화장실을 찾아 유축했다. 그 후로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점심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의 틈을 찾아 매일 1~2회 화장실에 유축을 했다.
>
> 화장실에서 유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여성 휴게실이 있더라도 내가 가슴을 드러내고 유축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화장실에서 유축하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회사 화장실은 깨끗하기도 했다.… 유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양이 줄을 까봐 꾹꾹 짜냈더니 평균 40분이 들었다. 요즘엔 양쪽 유축이 한번에 되는 유축기도 있던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건 한쪽씩 짜야 했다. 그래서 항상 쫓기듯 유축하고 일하고 했던 것 같다. 이 일로 업무에 지장을 줄까 봐 더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했다. 또 대다수가 남자 직원이라 이해를 구할 수도 없으니 하루 종일 회의가 있거나 출장이 있는 날에는 유축을 못하고 그냥 퇴근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08~209).

아기와 떨어져 있는 시간동안 불은 젖을 유축해서라도 계속해서 먹이겠다고 결심한 어머니들은 유축기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 그리고, 어머니와 유축기가 함께 할 곳, 즉, 수유실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아래 경우와 같이, 회사 상사와 동료들의 배려로 좀 더 수월하게 유축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도 하고, 출장 중에 공공시설내 수유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 복직 하루 전날 집근처 보건소를 들러 유축기를 대여하였다.... 회사 상사와 동료들은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모유수유 중임을 알고는 근무시간의 일부를 유축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미리 장소를 마련해주는 등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16).

> 전라도 남원으로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다음날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정이라 이틀을 아이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불어난 가슴을 비우느라 남원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동안 몇 군데의 수유실을 들렀는지 모른다. 그 중 기억나는 곳은 광주역인데 평소 수유실을 잠궈놓고 사용을 하는지 문을 열어달라 버튼을 눌러 호출을 해야 했다. 그랬더니 관리자로 보이는 분이 열쇠 꾸러미를 들고 오셨는데 아이 없이 혼자 수유실에 들어가겠다는 나를 보고 이상하게 쳐다 보신다. 결국 난 유축기가 든 주머니를 들어 보이며 설명을 했다. 그러자 수유실 문을 열어주시며 여기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이 문을 벌컥 열 수도 있으니 밖에서 지켜주시겠단다. 편하게 볼일을 보라며 친절히 문까지 직접 닫아주고 가셨지만 벌어진 문틈 사이로 그 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 가슴이 훈훈해져왔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17).

한편, 어머니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모유수유실을 만들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한 어머니는 기존엔 없었던 모유수유실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화장실이 유축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녀는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모유수유실을 만들어달라고 가끔 올라오던 의견을 떠올리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자신의 노력을 더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녀의 시도의 바탕에는 조금 더 회사에 요구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회사에 워킹맘들이 계속해서 아기에게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모유수유실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유축'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렸다.

>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 꼭 모유로 키우리라 생각해서, 관련 책도 사서 읽고 임산부 카페에서 모유 먹이는 엄마의 글도 찾아 읽곤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산휴가 이후에 어떻게 모유를 계속 먹일 수 있는가?"였다. 큰 아이가 태어나던 2007년 당시 회사에는 모유수유실이 없었고 내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땅히 유축할 장소가 없었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모유수유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가끔 올라오곤 했기 때

문에 조금 더 회사에 요구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출산휴가 이후 복귀했을 때에 꼭 모유수유실이 있었으면 싶어서 휴가기간에 회사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제목: 모유수유실을 만들어 주세요(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90).

그간의 쌓였던 간헐적 노력과 그녀의 글 덕분인지 몰라도, 그녀가 바랐던 것처럼 모유수유실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회사와 함께 자신의 아이를 모유로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글 제목처럼, 그 중의 8할은 '회사의 모유수유실'이었다.

기쁘게도 회사로 복귀하기 전에 모유수유실이 생겼다! 회사에서 유축한 모유는 냉장보관했다가 다음 날 낮 동안 먹이고, 집에 있을 때에는 직접 수유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모유로 키울 수 있었다. 모유수유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유실을 이용했고, 우리 아이는 나와 회사가 같이 키웠다는 생각을 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192).

어머니와 아기 두 사람이 맞춰가는 모유수유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기는 그 과정상의 주체였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간다. 탯줄로 연결되어 한 몸이었다가 출산의 과정을 통해 분리되었다가,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대등한 존재로 다시 육체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연결을 필요로 하는 시간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결국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이유(weaning)'이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젖 먹(이)기처럼 젖을 더 이상 먹(이)지 않는 것 또한 어머니와 아기의 공동 작업이다. 이처럼, 모유수유라는 여정을 함께 한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어머니는 건강상의 이유로 젖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서 아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이해를 구하였다.

태어난 지 1년이 된 날부터 본격적인 젖떼기에 돌입하였다. 하루에 대

여섯 번이었던 수유 횟수를 조금식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가슴에 반창고를 바르세요, 젖꼭지에 식초를 발라보세요 등등 인터넷에 떠도는 젖떼기 방법은 아주 다양했다. 하지만 스티커며 반창고며 짧은 손톱으로 다 뜯어버리는 아이에게, 찬장을 열어 손가락으로 식초, 까나리액젓, 간장을 골고루 찍어 먹는 아이에게 두 방법은 통할 것 같지 않아 나는 아이에게 젖을 떼는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희천아, 희천이는 이제 쭈쭈는 먹는 아기가 아니지요? 이제 밥 먹고 우유 먹어야 해. 엄마 쭈쭈는 다음에 태어날 동생에게 양보하자~ 처음에 엄마는 우리 희천이 다음 생일 때까지 쭈쭈 주고 싶었는데 엄마 찌찌가 지금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하려면 희천이가 여섯 달 동안 쭈쭈를 먹으면 안된대. 희천이 쭈주 못 먹어서 속상하지만 엄마 맘 이해해 줄 수 있지? 응 그래, 잘했어.

임신 전 왼쪽 가슴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가슴 초음파 검사를 했었는데 5년 전 오른쪽 가슴에 생긴 것과 같은 혹이 생겼다고 했다. 그 당시 전에 생긴 혹처럼 크기가 크진 않았지만 임신과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면서 혹이 점점 커지는 듯 하더니 지금은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크게 자라나 있다. 유선이 발달된 지금은 검사가 되질 않아 단유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두 돌까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치료를 계속 미룰 수 없어 젖을 끊게 된 것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3: 218~219).

5. 소 결

어머니들은 젖을 먹이면서, 자신에게 닥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자신만의 지식을 구축해 나갔다. 이것은 이미 겪은 선배맘들의 경험담과 책에 적힌 말들을 자신의 삶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맞춤형 지식이 없다는 것과 책 속의 죽은 지식만으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수유경험은 어머니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함께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이 둘은 그 과정에 있어서 주체였다. 어머니가 기존에 가졌던 환상과 자만이 깨지고,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머니는 아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다. 모유수유 과정에서 어머니는 아기에게 베풀기만 하는 시혜의 존재도 아니고 아기는 어머니가 젖을 주는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도 아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주는 고마운 존재로, 모유수유 과정에서 능동적 주체이다. 어머니와 아기가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와 아기는 서로를 알아가고, 어머니는 한 때 자신의 몸의 일부였던 아기를 개별적 자아로 존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엄마 젖 먹(이)기' 뿐만 아니라 '엄마 젖을 더 이상 먹(이)지 않는 것'도 어머니와 아기의 공동작업이 되었으며, 이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회사 복귀를 앞두고 나오는 젖을 억지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젖을 먹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워킹맘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루는 또 다른 축에는 엄마젖이 아니면 싫다고 온몸으로 거부하는 아기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할 때, 자신의 아기가 내고자 하는 목소리를 읽어내고 이를 위해 행동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워킹맘들이 계속해서 아기에게 엄마젖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 어머니들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 수유실이 없다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어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유축했으며, 또 다른 어머니는 기존에 없던 모유수유실을 만들어달라는 글을 회사 게시판에 썼다. 직장 내에 별도의 유축할 곳이 없다는 현실은 같았지만, 한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유축해서라도 자신의 아기에게 엄마젖을 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으며, 다른 한 어머니는 화장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모유수유실 만들기 노력에 자신의 힘을 보탰던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아이에게 엄마젖을 먹인다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왜 모유수유실이 없는가?”라는 문제제기 여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유축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모두 그녀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경험 차원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과 학습의 형태는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에 더 부합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달리 나타났다. 하지만, ‘모유수유를 하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녀들은 현실에서 함께 하지 못했고, 심지어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Ⅴ. 동행동행(同行同幸)

1. 길을 만드는 라레체리그(La Leche League)

조직 경험 차원의 연구대상인 라레체리그(La Leche League)는 1956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설립과정을 보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젖먹이는 어머니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어머니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모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NGO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늘날 라레체리그 리더들과 전세계 많은 나라의 라레체리그 그룹(group)은 어머니와 어머니(mother-to-mother)를 이어주는 네트워크이며, 라레체리그는 모유수유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그 권위[32]를 인정받고 있다(Kaye Lowman, 2007: 134).

라레체리그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레체리그는 Marian Tompson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1956년 7월의 어느 여름날, Marian Tompson과 Mary White은 CFM(Christian Family Movement) 야유회에 함께 하였는데, 편하게 아기에게 젖먹이는 자신들과 달리, 그 곳에서 분유수유를 하느라 고전분투하는 어머니들을 보게 된다. 그녀들은 분유가 상하지 않도록 차갑게 유지하느라, 그리고 아기가 먹기에 적당한 온도로 다시 분유를 데우느라 애썼다. 분유를 보관하느라 차갑게 유지해야 하고, 아기에게 줄 때는 이 차가운 분유를 덥히느라 그녀들은 이중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들의 모습

32) 라레체리그는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와 UN(United Nations),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자문위원(Consultant)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라레체리그는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등록된 민간 자원봉사기구(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이다. 그리고, U.S. National Breastfeeding Coalition과 CORE(Child Survival Collaborations and Resources Group)의 회원이며, WABA(World Alliance for Breastfeeding Action)의 창립멤버이자 주요 파트너이다(Diane Wiessinger et al. 2010: 441). 특히, UNICEF의 협력기구인 WABA는 모유수유 보호· 장려· 지원에 전념하는 조직과 개인들의 전지구적 네트워크로, 1992년 8월 1일~7일을 세계모유수유주간(World Breastfeeding Week)으로 지정하였다.

을 보면서, 아기에게 직접 수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었지만…”하면서 말을 하며 지나가는 한 어머니를 보면서, 초보맘이던 시절 자신이 겪었던 수유시 어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Marian Tompson과 Mary White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둘 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자 했을 때 좌절과 실망이라는 경험을 했고, 모유수유 성공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것과 실패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당시 Marian Tompson과 Mary White는 자신의 아기에게 직접 젖을 먹이고 있었지만, 이 둘은 모유수유 실패로 분유로 첫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Jule DeJager Ward, 2000: 8).

주변에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행복해하는 친구들과 아기들에게 젖을 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둘은 자신들이 젖먹이는 어머니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것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의 모유수유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모유수유를 실패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Kaye Lowman, 1978: 11; Kaye Lowman, 2007: 13).

이렇게 젖먹이는 어머니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1956년 Marian Tompson과 Mary White가 참여한 CFM 야유회에서 싹텄고, 그녀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총 7명[33]의 어머니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며, 1956년 10월 17일 Mary White의 집에서 모였던 첫 번째 공식적 미팅[34]에 앞서 문서화된 모유수유 정보

33) 라레체리그의 설립자들은 대부분 White 박사의 환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성 교우회(sodality) 내지는 CFM(Christian Family Movement) 참여라는 방식으로 St. Gertrude 로마 카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Mary Ann Cahill, 2001: 2).

34) 당시 조직명은 없었으며, 일년 뒤인 1957년 White 박사가 제안으로 ‘la leche league’으로 명명하였다. ‘la leche league’는 White 박사가 임신한 자신의 환자들에게 선물하던 ‘Nuestra Senora de La Leche y Buen Parto’라는 스페인 성모마리아 성물 메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는 ‘Our lady of Happy Delivery and plentiful Milk’이라는 뜻이다(Kaye Lowman, 1998: 16).

를 모으기 위한 몇 차례의 사전 모임[35]을 가졌다(Kaye Lowman, 2007: 13~16). 라레체리그가 탄생한 이듬해에, 그녀들은 자연분만(natural childbirth)의 선구자로 저명한 Grantly Dick-Read[36] 박사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문가의 연구와 경험을 듣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에게 강의 의뢰를 하였다. 1957년 10월 21일, 라레체리그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Grantly Dick-Read 박사의 강연회를 유료로 진행하였고,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37]이 몰려들었고, 강당에 준비된 1,250석으로 부족하여 사람들이 로비까지 가득찼다(Kaye Lowman, 2007: 19~22). 이러한 성공은 기반으로 해서, 1958년 그녀들은 책과 뉴스레터를 처음으로 발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들의 열심은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차갑게 La Leche League of Franklin Park'이라는 법인설립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7명의 창립자들은 모유수유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여성들을 도움을 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거창한 계획도 없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Franklin Park 모임에 참여하고, 언론과 책을 통해 라레체리그를 접하게 된 여성들도 참여를 희망하면서 라레체리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임[38]이 Franklin Park이라는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사는 곳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직은 성장하고 라레

35) 사전 모임에서는 모임 아이디어를 낸 Marian Tompson을 회장으로, Viola Lennon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분장을 통해, Edwina Froehlich는 총무, Betty Wagner는 회계담당자, Mary Ann Kerwin은 문서관리담당자가 되었다. 또한 Mary White는 의료계(medical community)와의 연락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Mary Ann Cahill은 모임내 글쓰기 달인(the groups' most proficient writer)이 되었다(Kaye Lowman, 2007: 16).

36) 'Childbirth Without Fear'의 저자인 Grantly Dick-Read 박사는 전세계적 의료전문가들에게 광범위하게 강연을 해 왔다. 하지만, 라레체리그 초청 강연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의 첫 번째 강의였다.

37) 참가자 중에는 버스를 전세내서 온 간호사들과 의대생들도 있었다(Kaye Lowman, 2007: 20).

38) 초기에 라레체리그 창립자들은 거대한 조직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 모임에 함께 원하는 경우 자신의 조직을 세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죽순으로 생기는 조직들이 라레체리그라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7명의 창립자들이 생각하는 젖 먹이는 것을 통한 마더링(mothering)의 컨셉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녀들은 라레체리그의 기준과 철학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정확한 모유수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모임을 이끌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Kaye Lowman, 1978: 37).

체리그는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숨죽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젖먹이는 어머니들(closet nursers)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하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라레체리그는 의사의 도움과 격려를 신뢰했고, 행함으로써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하는 의료진(medical community)을 지지했다(Jule DeJager Ward, 2000: 24~25). 라레체리그의 조언자였던 Ratner 박사와 White 박사는 라레체리그는 의료계의 위협이 아니라 후원자로 보았다. 또한, 창립자들은 당시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라레체리그의 전문지식(expertise)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의사들의 지식과 경험은 필수적이었다. 의료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라레체리그는 위원회나 부서를 만드는 등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머니들은 라레체리그 리더와 의사의 상반되는 조언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의사의 실수로 확신하는 리더는 이를 반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수준에서 의사들과 논쟁하는 것은 실수라는 주장도 있었고, 지역 그룹(group)이 그 지역의 의료 협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레체리그의 몸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이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리더인 Vera Turton는 학점을 통해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라레체리그에 제시했다. 그녀는 '모유수유'라는 주제에 대해 배운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과 의사들이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계속 의학 교육 학점(continuing medical edcuation credits)'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Mary Ann Cahill, 2001: 114). 그렇기에, 그녀는 의사들을 위해 학점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당시 라레체리그의 전문가 자문 위원회(Professional Advisory Board)의 도움으로, 그녀의 제안은 현실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1973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모유수유 세미나[39]가 열렸으며, 당시 인가를 담당했던 AMA(미국 의료 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실사 후 이를 승인하였다(Jule DeJager Ward, 2000: 26; Mary Ann Cahill, 2001: 115).

라레체리그의 미션은 “어머니들간(mother-to-mother)의 지지과 격려, 그리고 정보교류와 교육을 통해 전세계 어머니들의 모유수유를 돕는 것과 아기와 어머니의 건강한 발달(development)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모유수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Diane Wiessinger et al. 2010: 440)”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라레체리그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래에 잘 기술되어 있다.

> 모유수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위해서, 라레체리그는 전세계의 어머니들과 아버지, 의사들, 간호사들, 수유전문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접촉해 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A Professional Advisory Board)에서는 의학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다.
>
> 라레체리그와 연락이 닿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들의 아기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고 헌신한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 라레체리그 그룹들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해 매월 만난다. 또한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모유수유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전화로 라레체리그 리더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Kaye Lowman, 2007: 134).

이러한 라레체리그의 활동은 조직내 합의된 가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 조직의 기본적 철학[40]은 아래와 같다. 라레체리그의 리더는 아래 10가지 철학에 동의할 뿐 아니라 삶으로 이를 실천하고, 계속해서 이를 지켜나가기로 서약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미 리더가 되었다 할지라도, 매년 이 서약을 갱신해야만 리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리더가

---

39) 이 세미나를 위해, 라레체리그 창립자인 Marian Tompson과 Niles Newton 박사, Ratner 박사, White 박사, Mendelsohn 박사가 헌신했다. 세미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사가 아닌 어머니가 참여한 것을 보면, 이 세미나가 의사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뿐 아니라, 어머니의 관점도 전달하려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의사들이 다른 곳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Mary Ann Cahill, 2001: 115), 이 세미나는 젖 먹이는 어머니들을 돕는데 있어서 의사와 라레체리그 리더간에 하나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공식적 창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0) 출처: www.llli.org, (조회일: 2014.04.11.)

이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신이 리더 지원시 작성한 서약서(statement of commitment)에 의거하여 리더의 자격이 박탈된다(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2003).

- 모유수유를 통한 보살핌(mothering)은 아기의 니즈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만족스러운 관계와 적절한 모유 공급을 확립하기 위해, 초기에 그리고 자주 어머니와 아기는 함께 있을 필요가 있다.
- 초반 몇 년간, 아기는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강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음식에 대한 니즈만큼 기본적이다.
- 모유는 우수한 유아 식품이다.
- 건강한 만삭아에게 있어서, 생후 6개월 즈음 고형물을 필요로 하는 신호를 보이기 전까지 모유는 아기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 이상적인 모유수유 관계는 아기가 자라면서 스스로 모유수유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 출산시 어머니의 기민하고도(alert) 적극적인 참여는 모유수유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 아기 아버지의 애정 어린 지원과 동지애(companionship)로 인해, 모유수유는 강화되고 어머니와 아기의 수유가 지속된다. 아버지와 아기의 아주 특별한 관계는 영아 초기부터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 충분한 영양 섭취란 균형 잡힌, 그리고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가까운 식품들이 다양하게 먹는 것을 뜻한다.
- 유아때부터, 아이들은 애정 어린 가이던스(guidance)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가이던스(guidance)는 아이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그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헤아린다는 것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차원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라레체리그 서울의 시리즈 미팅모임(series meeting)은 이 조직의 시작과도 많이 닮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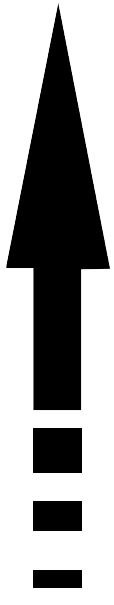
Marian Tompson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던 1956년 9월의 어느 날의 첫 모임이 그러했던 것처럼(Kaye Lowman, 1978: 15), 모임을 처음 제안했던 한 사람과 이 생각에 기꺼이 동참하는 어머니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은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한국에서 살게 된 라레체리그 리더 Z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모유수유에 관심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전형적인 라레체리그 시리즈 미팅 형태였다. 라레체리그 서울의 시리즈 미팅모임(series meeting)은 리더 Z의 인도로 라레체리그의 전형적인 방식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의 참석자는 태아에서부터 뛰어다니는 아이, 그리고 수유중인 어머니, 임신부에서부터 아기의 보조양육자인 할머니까지 다양했다. 매월 정해진 주제에 따라 그들은 모임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스럽게 수유를 하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수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리고, 연구자의 참여 관찰 횟수가 더해 갈수록, 모임에 함께 한 아기들도 함께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 자궁에 있을 때 처음 모임에 왔던 아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후, 뒤집고, 기고,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을 연구자뿐 아니라 이 모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지켜봤다.

이러한 방식은 스스로 보고, 듣고 더 나아가 말하고 실행할 때 성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2003: 29). 예를 들어, 임신부로 모임에 처음 나와서 젖 물리는 어머니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마침내 그녀도 그들처럼 자신의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렸던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모유수유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나왔던 초보맘은 젖먹이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후배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선배맘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참고로, 라레체리그의 리더를 위해 발간한 'Leader's Handbook'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한 라레체리그 학습체계는 [그림1]과 같다. 이를 위해, 라레체리그의 미팅 평가표 샘플(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2003: 83)에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그림1]에서는 방문자, 연회비를 내는 회원, 그룹을 위해 일하는 회원, 리더 지원자, 리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학습 대상과 목적에 따라, 학습형태를 미팅과 자격인증, 계속교육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구분	미팅	인증	계속교육
리더	시리즈미팅 향상 (Enrichment) 미팅 평가 미팅 리더미팅	IBCLC[41]	- 챕터(chapter) 미팅 - LLL 워크숍/ 컨퍼런스 -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인관계 향상(Enrichment)세션
리더 지원자		LLL리더십	
그룹 일꾼			
회원			
참석자			
방문자			

[그림1] 라레체리그 학습체계

41) 라레체리그는 19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수유 컨설턴트(lactation consultant)에 대해서도 연대를 통해 미래를 직접 만들기로 하고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 International Board of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라는 새로운 자격 인증에도 참여하였다(Mary Ann Cahill, 2001: 175). IBCLE에서는 시험응시자격 획득경로 중 하나로 라레체리그 리더로서의 활동을 인정하여, 보건학 교육 14과목 이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함께 그 길을 걷는 그녀들의 이야기, 라레체리그 서울

제보자들이 맨 처음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참석하게 주된 동기는 태어날(난)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고, 모유수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모임이고 어머니와 아기를 돕는 것이 목적인 NGO인 '라레체리그'라는 조직에 제보자들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첫 발을 디뎠다.

> 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 누구도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내가 젖을 먹이고자 한다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임신 36주째 처음 라레체리그 미팅에 오게 되었어요. (A, 2014.05.22.)

> 처음엔, 모유수유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D덕분에 라레체리그 서울을 알게 되었고, 질문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B, 2014.05.25. & 2014.05.28. 추가 답변)

> 처음엔 유두 통증이 있었고, 의사가 저에게 말하길 아기의 체중이 충분히 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아기는 녹변(green stool)을 보았고, 아기는 먹는 대신 제 가슴에서 잠만 잤어요. (응답자F, 2014.06.09.)

> 제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모임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전 출산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유축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LLL 리더이자 IBCLC인 Gretchen을 만났어요. 다른 어머니들을 만나고 더 많은 모유수유 충고(advice)를 듣기 위해서, 전 모임에 나왔어요. (응답자G, 2014.06.09.)

다른 사람들의 모유수유 실패를 기억하고 임신 전부터 모임에 나오기도 하고, 모유수유 중에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모임에 나왔다. 그런 그녀들이 계속해서 모임에 나오게 이유는 배움과

서포트(support) 그리고 친구로 요약된다. 특히, 듀라(doula)이면서 젖먹이는 어머니인 D는 맨 처음 참여 동기에서 커뮤니티를 언급한 적 있었는데, 6회 이상 참여하게 된 이유로도 친구들을 들었다.

> 출산 직후에 있었던 모임 빼고 모두 참석했으니깐, 총 14번 참석한 것 같네요. 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음으로 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서포트와 우정 또한 굉장했구요. (응답자C, 2014.05.25.)

>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 좋은 친구들이 된 엄마들을 만나는 것. 음. 전 항상 모유수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고, 모유수유에 대해 배우는 걸(learning) 좋아해요. (응답자F, 2014.06.09.)

듀라(doula)인 D와 출산교육가(Childbirth Educator)인 E가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나오는 이유는 커뮤니티를 세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라레체리그 리더가 되는데 관심이 있는 D는 라레체리그 리더의 의미를 듀라(doula)로서 자신의 하는 일의 가치있는 확대로 보았다. 그리고, 출산교육가이자 이미 자체 모임을 운영중인 E가 라레체리그 서울 시리즈 모임에 나오게 된 이유는 모임 형식과 모임이 진행되는 방식 등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 맨 처음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나온 이유는 라레체리그 리더가 되는 것에 관심 있었기 때문이에요. 듀라(doula)이면서 모유수유 상담사인 저에게 있어서, 라레체리그 리더의 의미는 듀라(doula)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있는 확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딜 가든 상관없고, 커뮤니티를 세우는 방법으로 전 라레체리그 리더가 되는 걸 택했답니다. 라레체리그 리더가 되는 건 시간도 무지 걸리기 때문에, 리더십 과정을 마친다는 건, 저에겐 매우 느린 프로세스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임 형식을 배우고 싶었고, 또한 다른 엄마들도 만나고 싶어서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
> 라레체리그 서울 시리즈 미팅엔 6번에서 8번 정도 참석한 것 같아요. 4회로 이루어진 시리즈 미팅(series meeting) 전체에 참여하고 싶었고 친

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다보니. (응답자D, 2014.06.01.)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4~5번 정도?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된 건 서포트 때문이지만, 저 또한 제가 사는 곳에서 젖먹이는 엄마들 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레체리그 미팅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과 여러 상황을 다루는 법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응답자E, 2014.06.05.)

응답자 대부분 시리즈 미팅 참여 동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특히,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 간절함에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참여하게 된 A의 경우, 자신에게 굳이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제가 참석하는 이유는 변한 적 없어요. 제 딸이 자라면서, 전 다른 질문들은 하게 되고. 제 질문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에요. (응답자B, 2014.05.25.)

(처음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 지금은) 라레체리그 미팅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 친구들을 보러 계속해서 와요. 그리고 지금도 모유수유 중이기에 막 시작하는 엄마들을 제가 도울 수도 있구요. (응답자A, 2014.05.22.)

응답자 모두 모유수유 중 어려움을 겪었는데, A는 종종 유관막힘과 유선염으로, B와 C 그리고 D는 아기의 설소대 단축증(tongue-tie)으로 고생을 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 E는 둘째 임신 중에 큰 애에게 젖을 주었던 것과 둘째 때 젖 사출이 심했던 것, 그리고 젖량 과다를 꼽았다.

갓 태어났을 때, 제대로 젖을 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두 보호기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아기가 너무 졸려하고 먹기 위해 깨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자주 시도했어요. 3개월쯤 되었때야 비로소

우리 아기 설소대가 짧다는 걸(tongue-tie) 알았어요. 설소대(clipped) 시술을 받고 나서, 아기는 젖도 잘 물고 유두 보호기 없이도 잘 먹어요. 그 외에, 유관 막힘, 그리고 유선염도 한 번씩 겪었어요. 그건 아기 성장과 더불어 수유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고 전 생각해요. (응답자C, 2014.05.25.)

아이가 둘인데, 둘 다 젖을 주고 있어요. 큰 애는 25개월, 작은 애는 11개월 2주랍니다. 그러니깐, 저희 아이들은 그들의 전생애 걸쳐서 젖을 먹고 있는거죠. 둘째 임신 중에 큰 애에게 젖을 주는 건 가끔 저를 지치게 했죠. 왜냐하면 제 몸은 뱃속의 아기를 키워내는 동시에 큰 아들을 위한 모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둘째 아들의 경우 젖사출이 심하고 젖량 과다였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낼 수 있었어요. (응답자E, 2014.06.05.)

또한, 응답자 G는 조산을 했는데, 당시 아기는 24주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다. 이로 인해, 현재 7개월간 모유수중이라는 그녀는 처음 4개월간은 유축으로만 아기에서 젖을 주었고, 이후 2개월간은 우유병이 아닌 가슴으로 주기 위한 과도기로 유축과 젖물리기를 병행했고, 지금은 유축을 하지 않고 바로 젖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아기는 115일간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Neonatal Intensive-Care Unit)에 있었는데,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젖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녀는 한 번에 30분씩, 하루에 총 8번 유축을 하였다. 처음 3~4개월간 그녀는 유두 통증으로 힘들었는데,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린 후 그 이전에 겪었던 유두 통증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했다.

응답자 모두 모유수유 조기 중단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녀들 모두 인터뷰 당시에도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주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겪은 위기 상황을 막힌 영역이라고 단정할지 몰라도, 그녀들은 자신들이 처한 한계상황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능성들이 시작되는 '한계상황'을 경험한 그녀들은 그렇게 아기와 함께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경험한 선

배맘들을 통해서 배웠다. 어머니들의 경험담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모유수유에 대해 알아갔다. 더 나아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A가 당초 계획했던 모유수유기간은 12개월이었지만, WHO와 Unicef에서 권장하는 모유수유기간이 2년인 것을 안 뒤 그 기간을 연장했다.

> 많이 배웠어요. 맨 처음 왔을 땐, 생후 12개월 정도에 젖을 뗄 생각이었거든요. 다른 엄마들을 만나고 수유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아기들은 적어도 2년 동안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수면 이슈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배웠어요. 제가 겪고 있는 것들은 이미 경험한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응답자A, 2014.05.22)

> 전 모유수유에 대해 미처 많은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엄마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모유수유를 시작할 때 예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질문하고 조언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응답자C, 2014.05.25)

> 네, 시리즈로 구성된 모임의 주제들과 문제를 극복하는 엄마들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전 이것을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응답자D, 2014.06.01)

> 네,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전 제가 다른 엄마들과 리더인 Z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배웠냐구요? 음. 미팅에 참석하는 것, 이야기와 경험을 듣는 것 등.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응답자E, 2014.06.05)

>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과 해결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죠. 젖량 과다, 유관 막힘, 유두 통증 등등. 그리고 젖먹는 아기에게 고형식을 시작하는 것과 아기를 이유로 이끄는 것에 대

해서도. (응답자F, 2014.06.09.)

특히, 이미 자체적으로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E는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을 이끄는 리더인 Z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더 Z는 라레체리그 리더로서 활동하다가 그 경력을 인정받아 국제모유수유전문가(IBCLC,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고, 그 시험에 합격하여 IBCLC가 되었다. 그런 그녀는 라레체리그 리더로 자원봉사하는 동시에 국제모유수유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젖 먹이는 어머니와 그녀의 아기를 돕는데 매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또한, Z는 자신의 두 아이를 모유수유로 키운 어머니일 뿐 아니라 라레체리그 리더로서의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지녔기 때문에,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참석한 어머니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렇기에, 리더 Z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라레체리그 서울을 이끌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D는 아래와 같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라레체리그 서울과 함께 한 제 경험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이 모임의 리더인 Z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그룹내에는 라레체리그가 인증한 리더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라레체리그 공식 모임이 아니라 이제 모유수유하는 엄마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그룹의 성격이 바뀌는데요] Z가 이 그룹을 이끌어서 다시 한 번 라레체리그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D, 2014.06.01)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은 모유수유뿐 아니라 외국에서 어머니가 되어 고립된 상황에 처한 그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때론 동지애를 느끼기도 하고, 모유수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라레체리그 서울 시리즈 미팅이었다.

미팅에 처음 나온 G는 모임에 나오기 전부터 라레체리그의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책을 통해 이미 라레체리그를 만났던 그녀가 이

제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그녀와 같이 젖먹이고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 했다. G는 그녀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리고, 출산 전문가로 이미 훈련받고 인증까지 받은 E의 경우, 자신이 모유수유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스스로 책과 아티클을 읽으면서 모유수유 관련 지식을 얻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엄마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와 경험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

또한, 그녀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알아가면서 모유수유라는 여정을 함께 했다. 외국에서 온 초보맘인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특히, A는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서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 라레체리그 서울은 자신을 견디게 해 준 힘이며, 자신이 어머니임(motherhood)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 전 단지 한 번의 미팅에 참석했을 뿐이라서 LLL이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책(The Womanly Art of Breastfeeding)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어요. (응답자G, 2014.06.09.)

> 25개월 전, 내가 처음 모유수유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느껴요. 이러한 지식 중 일부는 제 스스로 얻은 것도 있고, 책과 온라인 포럼, 아티클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도 있죠. 하지만, 엄마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와 경험들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응답자E, 2014.06.05.)

>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저와 같이 모유수유하는 다른 여성들과 동지애를 즐기고 있어요. 몇몇 여성들은 모유수유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전 그들의 불굴의 노력이 담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요. 듣다보면, 제 여행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요. (응답자B, 2014.05.25)

> 외국에서 온 초보맘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매

우 중요한데요, 라레체리그는 제가 이 곳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한, 제가 모유수유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라레체리그는 제가 필요로 하는 서포트를 해 줬어요. (응답자C, 2014.05.25)

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것,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아기를 키운다는 건 때때로 정말 어려워요. 라레체리그와 내가 거기서 만난 엄마들의 서포트(support)가 없었다면, 난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을 거에요. 모유수유뿐 아니라 다른 귀한 조언들을 많이 얻었어요. 이 그룹 덕분에 난 더 나은 엄마가 되었어요.

라레체리그 서울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일년간 어머니임(motherhood)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응답자A, 2014.05.22)

네, 분명해요.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제 친구 중에는 애엄마가 없었어요. 아기가 있는 한국인 엄마들 몇 명을 알긴 했지만, 그들 누구도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어요. 전 제가 100% 모유수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매일 전 18~20번 아기에게 젖을 주었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맞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전 철저히 혼자였고, 어쩔 줄 몰라, 매일 울었어요. 제 남편은 한국인이에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아기에 대한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둘 다 육아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 지쳤어요. 아기가 생후 6주가 될 때, 전 LLL 미팅에 처음 참석했고, 그건 정말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전 초보맘과 선배맘들, 그리고 저와 같이 한국인과 결혼한 엄마들도 만났어요. 전 제가 아기에게 젖 먹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감도 얻었어요. 전 LLL 미팅에서 만난 많은 엄마들과 밖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그들과 항상 문자를 하죠. 전 모유수유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고, 초보맘과 임신부에게 있어서 제가 서포트(support)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응답자F, 2014.06.09.)

그리고, 그녀들은 라레체리그 시리즈 미팅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출산 이후 듣고 싶었던 말과 격려, 그리고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들려주

는 생생한 경험, 자신이 알아 낸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녀들은 경험의 공유를 꼽았다. 이는 그녀들 자신이 라레체리그 서울에서 배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 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난 제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줬으면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내 아이는 괜찮다고. 그래서, 나는 모임에서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자주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지 궁금해 할 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해 주려고 항상 노력해요. (응답자A, 2014.05.22.)

> 전 모유수유에 대한 편견에 대한 내용을 다룬 데이터와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전 젖 먹이는 엄마들이 들려주는 그 생생한 경험,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답니다.(응답자B, 2014.05.25.)

> 제가 알아 낸 유익한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건 다른 엄마로부터 들은 것이죠. (웃음) 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많은 것들은 배운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응답자D, 2014.06.01.)

> 만약 다른 엄마들이 저와 비슷한[조산과 유축수유] 경험 또는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알고 싶어요. (응답자G, 2014.06.09.)

B와 G[42]를 제외하고 응답자 모두 라레체리그 연회비를 내는 회원이다. 이들이 라레체리그 회원 가입을 한 이유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커뮤니티에 대한 보답과 리더가 되기 위함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껏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라레체리그 회원이 되어 연회비를 냈다. 그녀들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조직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며, 자신이 낸 회비가 라레체리그 서울에서 모유수유 관련 도서 구입과 같은 커뮤니티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42) G는 2014년 5월 라레체리그 서울의 마지막 공식 모임에 처음 참석한 관계로, 라레체리그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연회비를 내는 회원인지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있었냐고 반문하였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레체리그는 조직 차원에서 연회비를 내는 회원에 한하여 리더십 과정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더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는 우선적으로 라레체리그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리더가 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내는 회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회원 가입에 대한 그녀들의 대답을 라레체리그 서울 시리즈 미팅에 나오게 된 이유와 함께 살펴보면, 그 뜻은 보다 분명해 진다. 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라레체리그'라는 국제적 명성에 기대어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녀들은 모두 젖먹이는 어머니이고, 라레체리그 서울에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그녀들은 전혀 다른 시작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전자가 평범한 초보맘 그룹이라면, 후자는 '듀라(doula)'와 '출산교육가(childbirth educator)'로 대변되는 전문가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라레체리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리즈 미팅을 진행하는 리더Z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라레체리그 리더로 활동하는 것은 명성과 신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편, 임산부들이 주를 이루는 시리즈 미팅과 같은 만남의 장은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잠재적 고객과의 접점(contact point)이 될 수도 있는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카페N에서 언급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보건소 모유수유 강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인 자신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 난 커뮤니티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돈의 일부가 도서관을 세우는데 쓰일 거라는 것과 영어로 된 이러한 자료들을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응답자A, 2014.05.22)

> 네, 회원이에요. 제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준 이 모유수유 그룹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응답자C, 2014.05.25)

> 네, 회원이에요. 조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더가 되고자 연회비를 냈어요. (응답자D, 2014.06.01)

네, 라레체리그 회원이에요. 라레체리그 리더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회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 E, 2014.06.05.)

제보자들과 함께 한 라레체리그 서울의 경우, 월 1회 진행되는 시리즈 미팅외에도 모유수유를 위한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13년 8월 1일과 2일에 걸쳐 진행된 전세계 젖먹이는 어머니들의 행사인 'Big Latch On(지구촌 엄마젖 먹이기)'에 동참했다. 라레체리그 서울의 리더인 Z는 시리즈 모임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이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를 희망하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는 어머니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 리더Z는 서울 모처의 장소를 섭외하고 온라인상으로 등록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참고로, 이 캠페인은 2005년 8월 첫째주 세계모유수유주간(World Breastfeeding Week)에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엄마젖을 먹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 알리기 위한 것으로, Joanne Edwards와 Annie Brown, 라레체리그 USA 회원들의 노력으로 2011년에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43]되었다. 이 캠페인은 둘 이상의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들이 사전에 등록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으로, 개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1분 이상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젖먹는 아이들의 수를 증인[44] 앞에서 센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모인 인원수를 합산하여 지구상에서 이 캠페인에 참여한 총 인원수를 집계하여 기록한다.

이러한 전지구적 캠페인에도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참석했던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함께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가치를 세상에 전했다. 그들의 자발적 노력은 리더Z가 더 이상 모임을 이끌지 않는 2014년 8월 1일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지만, 그곳에 제보자 D와 E는 없었다.

---

43) 출처: http://biglatchon.org/about (조회일 : 2014. 07.31)
44) 어머니를 기준으로 10명당 1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3. 소 결

매월 시리즈 미팅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을 리더의 역할과 책임으로 규정할 만큼(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2003: xvii), 라레체리그 조직차원에서도 이 모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젖먹이는 어머니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 편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리더의 도움을 일대일로 받을 수 있지만, 시리즈 미팅에서는 젖 먹이는 어머니가 만남을 통해 현실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그녀들은 그저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현실화시켜갔다. 예를 들어, 태어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었다는 A는 자신의 가족 누구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던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며, 모임에 나와서 UNICEF와 WHO가 권장하는 모유수유 기간이 2년임을 안 뒤에 자신의 수유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처음 모임에 나왔을 때 초보맘으로서 궁금한 것을 선배맘들에게 물어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젖먹이는 어머니로서 자신이 다른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그녀는 라레체리그 서울의 도서 담당으로 섬기고 있다.

경험학습의 관점에서 A가 이 모임에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A는 자신의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했고, 태어날 아기에게 자신은 자신의 젖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과 모유수유를 하는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녀는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라레체리그 서울 모임에 나왔다. 그리고, 그 모임에 나온 모유수유 동지들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라레체리그 조직 자체에서도 경험은 학습과 성장의 원천이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었지만 먹이지 못했다'는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분유수유시 끓인 물을 식히고 또 아기에게 먹일 적당한 온도를 맞추는 일의 번거로움은 CFM 야유회가 있었던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성찰적으로 관찰한 Marian Tompson과 그 자리에 함께 한 Mary White가 있었기에, 라레체리그는 시작될 수 있었다. 자신들의 과거 모유수유 실패 경험과 현재의 모유수유 성공 경험이 단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임을 깨닫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어머니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과 젖 먹이는 어머니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녀들은 그저 생각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

라레체리그를 탄생시킨 창립자들의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순환 과정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면서, 라레체리그는 전지구적인 NGO로 성장했다. 라레체리그는 "공공의 통제로부터 해방되어 상호 조정과 권위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자율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었으며(김하자, 정승교 역, 1992: 280), 이러한 구성의 과정은 설립자나 다른 누구에 의해서 계획되고 통제된 것이 아니었다. 즉, 현실에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질서(spontaneous order)[45]가 이끌고 가는 방향에 따라 일어나는 대로 진행된 결과였다(김하자, 정승교 역, 1992: 283).

역사적으로 볼 때,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숙련된 유경험자로부터 보고 배운다는 '견습(apprenticeship)'의 관점에서 출발했다(소경희, 2005: 193). 이러한 상황은 초보맘이 견습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이후 선배맘이 되어 다른 어머니들에게 아기에게 젖먹이는 일을 가르치는 일에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남성 뿐 아니라 여자들도 집을 떠나 일하게 되었고, '인공수유'를 통해 여성은 젖먹이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교적 안전해진 '인공수유'라는 새로운 방법이 유행하면서, 경험많은 할머니의 조언은 '말과 마차'와 같은 구식이 되었다. 그리고, 숙련된 유경험자

45) Michael Polanyi(김하자, 정승교 역, 1992: 281)는 "자의적 질서란 상호 조정에 의해 자유롭게 발달하는 질서 잡힌 전체"라 하였으며, '해방'의 한 형태인 '자유'라는 개념 하에서 "많은 사회 문제가 다양한 자의적 질서의 발달을 통해 관리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 한 바 있다.

이자 경험많은 할머니로와 젖먹이는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즉,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새로운 과학에서 의사가 조언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유영난 역, 1986: 269).

하지만, ‘인공수유’라는 새로운 시도는 엄마와 아기들을 실험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세기 초부터 “젖먹는 아기보다 인공수유하는 아기들 중에 발병과 사망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유영난 역, 1986: 267). 인공수유하는 아기들이 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일을 통해, 살균 기술과 이전보다 안전한 인공수유 방법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이면에는 인공수유나 모유수유이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유영난 역, 1986: 268).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아와 인공수유아 사이에 나타난 질병과 사망의 전체적 수치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그 때까지 엄마들에게 강조되던 것은 인공수유일 뿐이었다.

그리고, 의학이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기를 다루어 왔던 것처럼, 의학은 문제가 있는 인공수유아를 대상으로 분유의 혼합물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 사이, 의과대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모유수유’라는 주제는 사라졌다. 여기에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없다는 젖먹이는 엄마들의 단정도 한 몫을 했다. 그리고, 현대적인 수유방법으로 크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소아과 의사들은 젖만 먹는 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엄마젖만을 먹는 아기는 설사를 하는 적이 거의 없고 장염과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하는 예는 더욱 드물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다(유영난 역, 1986: 269).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엄마없는 아기에게 보다 안전하게 ‘인공수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차적인 선택으로서의 ‘인공수유’라는 예외적이고도 새로운 방법이 당연시 되었다(La Leche League, 1958: 1). 이렇게 ‘인공수유’가 표준으로 인식되던 당시 시대상은 Dewey의 글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어린 아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어린 아이의 음식, 휴식, 활동에 대

한 욕구는 일차적이며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하며, 편안한 잠자리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일정한 시간 계획이 없이 아이가 보채고 울 때마다 아무 때나 젖을 먹이고 잠을 재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어머니라면 젖먹이 아이의 욕구를 참작하기는 하지만, 외적 상태와 조건을 고려하고 조절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망각하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현명한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은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외적 조건들을 그냥 아이들의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내적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즉각적인 내적 상태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외적 조건들을 적절히 조절할 것입니다(박철홍 역, 2002: 136~137).

라레체리그에서 말하는 모유수유를 통한 보살핌(mothering)의 의미는 분유수유에서 말하는 4시간에 한 번과 같은, 일정한 시간 계획과 다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머니의 젖 공급과 아이의 젖 수요는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 어머니의 젖이 차는 시점과 아이가 젖 먹을 시점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 계획 없이도 어머니와 아기는 그 때를 알 수 있다. 즉, 아기의 울음의 의미를 어머니는 자신의 몸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유관계를 구축한 어머니와 아기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수유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때나'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시간 계획'보다 더 정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자간의 상호작용은 그들만이 암묵적으로 아는 것으로, 타인의 눈에는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는 일정한 시간계획 없이 아기에게 젖을 주는 모습으로, 어머니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런데, Dewey도 당연시한 '과학적 시간 관리'에 기반한 수유에 대한 지식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 같은[과학의 발달로 인공수유로 인해 죽을 확률이 높지 않게 된] 시기에, Emmett Holt 박사는 'The Care and Feeling of Children'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이것은 1895년에 출판되었다. 앞의 몇 장들(early chapters)에서 그는 어머니들이 모유수유할 것을 장려하지만, 몇 페이지를 다양한 종류의 분유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할애하였고, 어머니들은 이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여겼다.... 심리학자이자 행동주의의 창시자인 John B. Watson 박사는 이러한 주장[Emmett Holt 박사는 소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아기들을 엄격한 수유 계획 하에 두어야 하고 생후 3~4개월된 아기에게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6~7시까지 밤중수유 없이 자야 한다고 했다]에 불을 지폈다. 아기가 얼마나 울든, 배가 고프든, 명백히 아기가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4시간 간격으로 수유할 것을 포함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기를 일정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928년 출판된 그의 책, 'The Psychological Care of Infant and Child' 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Watson 박사는 애정어린 접촉을 최소화하고 형식적이고 엄격한 일과(rountine)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기는 길들여야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미개인(savage)이기 때문에, 그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들거나 부드럽게 흔들지(rock) 말 것을, 그리고 아기가 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Kaye Lowman, 2007: 25)

라레체리그는 당시에 과학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던 이와 같은 소위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과학과 어머니들의 개인적 경험을 정보의 원천으로 삼았다(Jule DeJager Ward, 2000: 30). 라레체리그는 가장 적절하고,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과학 정보로 어머니들을 안내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Jule DeJager Ward, 2000: 47). 이러한 노력은 라레체리그 창립자이자, 배우자의 직업이 의사였던 Mary White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 고생했던 경험은 단지 Mary White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창립자 일부도 Mary White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46]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크게

46) Mary White는 자신의 이전 경험, 분유수유를 하게 된 이유로 "출산시 그녀에게 투여한 약물

다르지 않다.

모유수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던 그 시절에, 젖먹이는 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선 라레체리그는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신문과 잡지, 인쇄물을 통해 라레체리그의 존재를 알게 된 어머니들이 편지를 보냈고, 라레체리그는 이에 답장을 하였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했지만, 그들의 질문에는 유사성이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마침내 라레체리그는 시간 절약을 위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구성하고, 모유수유 방법과 이유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준비된 답변을 제공[47]하였다. 이는 시리즈 미팅의 주제에 관하여 간추려 말하는 것으로, '우편 통신 과정(Course by mail)[48]'이라고 명명되었다. 그 결과, 'The Womaly Art of Breastfeeding'인이라는 제목의 소책자(booklet)가 1958년 9월 첫 번째 출판[49]되었고, 2년 뒤에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라레체리그라는 조직이 커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지식을 담은 'The Womaly Art of Breastfeeding[50]'의 판매부수와 책 페이지수도 늘어갔다. 1958년 초판은 17,000부, 1963년에는 나온 2판은 1,1720,200부가 팔렸다. 그리고, 1958년 당시 페이지수 33장이었는데, 1981년 3판에서는 368장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1997년에는 출판된 'The Womaly Art of Breastfeeding' 6판은 9개 언어로 번역되었다(Mary Ann Cahill, 2001: 93).

1958년 5월 'La Leche League News'[51]라는 이름의 유료 소식지에

에 아기가 취해서", "출산 첫 날, 그녀의 젖이 충분하지 않고 보충수유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아서", "집에 온 후로 어머니 주도의, 인공수유 스케쥴"을 따랐던 것을 들었다(Jule DeJager Ward, 2000: 47).

47)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라레체리그 창립자들은 개인적 메모(personal note)를 동봉했다. 이 중 대표적인 메시지는 "젖 먹이는 능력에 대해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이 시대의 많은 엄마들이 성공했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의심이 들 땐,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전화하거나 편지를 주세요."였다(Mary Ann Cahill, 2001: 92).

48) 1958년 첫 발행된 라레체리그 소식지에 보면, 연회비 2달러를 내는 회원(Active Membership)에게는 La Leche League 뉴스레터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시리즈 미팅 또는 우편 통신 과정(Course-By Mail)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49) Dick-Reed Ratner 박사의 강연회 수익금으로 'The Womaly Art of Breastfeeding' 초판을 인쇄하였다.

50) 이 책의 최신 버전은 2010년에는 출판된 8판으로, 이는 전정판(new revised edition)이다.

51) 1984년 뉴스레터의 이름을 'New Beginnings'로 바꾸었다.

이어, 라레체리그는 리더들을 위한 소식지인 'Leaven'도 발간하였다. 또한, 1977년에는 시리즈 미팅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에서부터 다른 어머니들이 라레체리그 리더가 되는 것을 돕는 것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이 'The Leader's Handbook'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러한 저술 활동 이외에도, 라라체리그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를 돕는 것'과 '모유수유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조직의 미션하에, 의료계와 연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라레체리그는 자체적으로 노력하였다. 즉, 라레체리그 내부 조직 구성을 통해서 그리고 리더 개인이 의료계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경험상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라레체리그는 의사들이 믿는 권위에 기대어 의사를 교육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여성의 지혜에 익숙하지 않던 현실(Jule DeJager Ward, 2000: 25)을 감안할 때,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의사들에게 라레체리그의 길을 안내하려는 시도는 의사들과 소통하고자 또 하나의 노력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대화 참여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대면자가 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우월한 지식이라는 공통된 하늘(Michael Polanyi, 1962: 574)"을 머리에 이고 함께 나가가려는 시도였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진리를 발견하고 말하는데 있어서 그의 책임감을 완벽하게 이행(Michael Polanyi, 1974: 267)"하고자 하는 라레체리그의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라레체리그를 의료진들과 동등하게 책임있는 입장으로 서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라레체리그는 "의학에 어떤 과제를 주는 자"일 뿐 아니라(김하자, 정승교 역, 1992: 53), 의료진들과 더불어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함께 했다.

의사들이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에 집중하고 의사들이 라레체리그의 가르침을 거부감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라레체리그는 의사들이 신뢰하는 AMA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학점'을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기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

해서 모유수유 여정을 함께 했던 것처럼, 의사들이 익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의사들이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학점을 이수하고 있고, 모유수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은 라레체리그 밖에 없었다. 의사라는 전문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AMA로부터 승인받는 실험적 행동을 통해, 자원봉사자 리더인 Vera Turton의 아이디어는 라레체리그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는 모유수유모의 경험이 살아 숨쉬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여 모유수유를 직접 해보지 못한 사람들과도 공유하려는 라레체리그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라레체리그의 실천은 '해방'의 한 형태, 즉, "초개인적 의무에 복종함으로써 개인적 목적으로부터 해방"으로서의 '자유'의 발현으로 해석된다(Michael Polanyi, 1974: 277). 즉, 개인주의적 자유 이론과 거의 정반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라레체리그의 노력은 "상당히 혁신적인 개인적 판단의 권리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에는 그녀들의 전 인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고 상호 권위의 체계내에서 공유하는 자유(Michael Polanyi, 1974: 278)"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라레체리그는 창립자 뿐 아니라 리더와 회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헌신(Michael Polanyi, 1974: 279)"이 있었기에, 지금껏 조직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도 같던 그녀들의 목소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서서히 퍼졌나갔다. WHO가 표어로 "젖 먹이기, 인생의 근본"이라고 삼을 정도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모유수유는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던 시대적 요청이 반영되어(Jule Dejager Ward, 2001: 87~110),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WHO는 1979년 Geneva에서 "젖먹이는 것은 생식주의 일부이고, 아기에게 자연스럽고 이상적으로 먹이는 방법이며, 아동의 생물학적 감정적 발달의 근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유영난 역, 1986: 17). 그리고, 1981년 모유대체식품의 판매에 관한 국제 규약과 1990년 Innocenti

선언(Declaration), 1991년 Unicef와 WHO에 의해 시작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52] 등과 같은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들의 조직적 노력보다 앞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젖 먹이는 어머니들을 돕는 조직적 실천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라레체리그이다.

52) 출처 : Unicef 홈페이지 (http://www.unicef.org/nutrition/index_24806.html)

Ⅵ. 논의

‘우유병’이나 ‘분유’라는 대체제가 없던 시절,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다음의 일들을 겪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었다.

> 아기가 태어나고 젖이 나온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준다.
> (La Leche League of Franklin Park, Inc, 1958: 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모유수유’는 어머니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기집’을 발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모유수유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묻는 요즘 엄마들. 그리고 국적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라레체리그’ 조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미팅에 참석하는 엄마와 아기.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모유수유에 대한 그녀들의 대응이다.

임신과 출산, 수유. 이 세 가지는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몸으로 겪는 순차적 경험이자 전생애의 발달과정상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생물학적 경험은 ‘개체’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새로운 지식의 구성가능성은 암묵적 형태로 드러나는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한숭희, 2008: 84). 앞서 살펴본 모유수유모의 경험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도 했다. 즉,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먹이는 동일한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그녀들의 경험은 획일적인 무언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초산모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할 지라도 어머니 개인 간의 차이로 인해, 경산모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그 경험의 형성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험의 형성의 다양성은 새로운 지식의 구성하는 씨앗이 된다.

3가지 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 개인과 자신의 상황에 따

라 그녀들의 반응은 상이했다. 우선, '수기집'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인 '젖이야기'를 나눠준 어머니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수유맘과 선배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기집에 필자로 참여한 그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이미 그 책을 읽고 있는 임산부에게 선배맘으로서 '모유수유'라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수기집'의 필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모유수유를 외쳤고, 수기 작성이라는 활동을 통해 참여하였지만, 이들의 노력은 거기서 그쳤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는 조직에서 기획한 행사에 참여하였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유수유 경험을 통해 그녀들이 배운 것, 글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그녀들의 조직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집단적 경험 차원에서 살펴보았던 '카페N'는 온라인 공간의 장점인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잘 일어나는 곳으로, 그 속에서 어머니들은 모유수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떠들었다. 육아정보 공유 커뮤니티로서 카페N은 친정처럼 푸근하고 무엇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 곳에서는 각자의 주장만이 있을 뿐, 정작 이를 조율하고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은 없었다. 그리고, 카페N에서는 필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카페N에 올라온 글에 대한 검증은 온전히 그 글을 읽는 회원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카페N을 개설하고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지심슨'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라레체리그 창립자들의 선배맘은 성경 속 인물인 'Eve'였다(La Leche League of Franklin Park, Inc., 1958: 1). 그녀들은 'Eve'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자궁에서 아기를 키워냈던 어머니들이 왜 젖 먹이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1950년대 미국의 상황[53]과 더불어 신앙과 자연주의에 기반한 Marian Tompson의 믿음[54], 그리고 자신의 신

53) Kaye Lowman(2007: 13)는 이에 대해 "의사로부터 들은 잘못된 정보, 친척들의 압력, 좋은 정보의 부족, 정서적 지원의 부재, 혼자라는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느낌"으로 요약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시 젖 먹이는 것은 외롭고 종종 불가능한 여행을 하는 것과도 같았다고 지적하였다.

54) Marian은 "어머니들이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얻을 수 있다면, 어머니들이 모유수유 경험이

념을 현실화시키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가 '라레체리그'라는 조직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젖 먹이고자 하는 어머니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Marian Tompson은 몇 달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야유회에 함께 한 Mary와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생각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임신한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러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젖 먹이고 있는 친구들을 모으고, 이를 조직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직 탄생 비화에서 신화적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Jule Dejager Ward, 2000: 8), '라레체리그'이라는 조직의 탄생은 Kolb(1984)가 제시한 이상적 '학습과정'의 결과였다. 그리고, 전지구적 NGO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서도 '학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교육'이 있었다. 라레체리그는 "학습과 자기조직을 되먹임"하는 '자기 조직화의 시스템(self-organizing system)'으로, "학습과정을 통해 조직 자체가 성장"했고, "성장한 조직은 또 다른 조건과 환경을 성원들의 학습과정에 부여"했다(한숭희, 2001: 416).

라레체리그 활동 뿐 아니라, 그들이 기부자들의 기부금 공제를 위한 면세 지위(tax-exempt status)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비영리 구분 범주에서 '교육 조직(educational organization)'을 선택했다(Mary Ann Cahill, 2001: 83). 이러한 제도내의 자리매김은 라레체리그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 준다. 비록 이러한 자기 규정이 본질을 은폐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최소한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희미하던 라레체리그의 정체성은 라레체리그의 활동영역 중 하나인 '의학(medicine)' 분야(Jule Dejager Ward, 2000)에서 그녀들이 남긴 발자취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해진다.

라레체리그 창립자들은 당시 당연시되던 '인공수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과학적 자료들을 찾았고, 이를 출판했다. 인쇄를 통한 공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라레체리그의 창립자들은 자신이 믿는 바와 직접 체험한 것을 글과 자신의 삶으로

있는 선배맘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녀들도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Kaye Lowman, 2007: 13).

보여주었고, 다른 어머니들이 각자의 몸으로 이를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이러한 개별적인 검증이 쌓이고 집약되면서, 의료 전문가들에게서 잊혀졌던 '모유수유'라는 자연의 방식을 의학계가 다시금 발견[55]할 수 있게 도왔다. 이를 통해, 라레체리그는 과학적 의견 전반 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기, 더 나아가 인간 삶의 방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Marian Tompson이라는 한 개인에서 출발하여 결국 사회적인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졌다.

라레체리그를 통해 살펴본 개인과 사회의 변화의 관계는 "평생교육의 관점간의 갈등(김경희, 2001: 442)"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이자, 라레체리그의 탄생과 성장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연구자가 제시하는 "표상화되어 가는 경험적 증거(한숭희, 2001: 409)"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연구자가 "평생교육이라는 사회현상의 존재 및 그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한숭희, 2001: 413). 또한, 이는 서구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성인교육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가치가 기독교였다는 Jarvis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하다(강선보 외 역, 2011: 365~367).

불행히도,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성인교육이 평생학습시장에 통합되었다는 Jarvis의 주장은 라레체리그에도 적용된다. 라레체리그 서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된 이유로는 자신이 라레체리그에 받은 도움을 다시 조직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과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는 실질적이고도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들은 라레체리그 서울 시리즈 미팅에 나오게 된 이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즉, 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출산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개인의 직업적 가치의 확장이자 영역 확대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전자는 평범한 초보맘 그룹으로, 후자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인 라레체리그는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시리즈 미팅

55) 저개발국가에서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세계에 알려진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은 아주 감염이 된 환경에서도 아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사실,도 이러한 발견에 한 몫을 했다(유영난, 1986: 245).

(series meeting)과 같은 만남의 장은 잠재적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contact point)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로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임신부는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할지 모를 미래의 고객이다. 그리고, 출산 관련 전문가들은 젖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인 라레체리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또한, 기존 리더들에게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가 될 수 있는 길[56]도 열려 있다. 만약 기존 리더들이 시험을 통해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그들 또한 비슷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라레체리그에는 이와 관련해서 리더가 준수해야 할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리더들이 이를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라라체리그의 철학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체화하고 이를 되새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레체리그 초기에 이런 문제는 이미 제기된 바 있고, 이를 리더 인증 과정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Kaye Lowman, 1978: 40). 별도의 조치 없이 우수죽순으로 생기는 조직들이 '라레체리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때, 젖 먹이는 것을 통한 마더링(mothering)에 대한 창립자들의 컨셉과 같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처럼 라레체리그의 기준과 철학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56)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CLC)의 인증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국제모유수유전문가'라고 불리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로서의 초보적 실무를 유효하게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은 '공인된 의료전문직이나 공인된 모성후원회의 카운슬러', '공인된 학술 프로그램', '멘토 지도'라는 3가지 경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라라체리그는 IBCLC가 인정한 모성후원회로, 라레체리그 리더가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응시 직전 5년 기간 동안, 수유와 직접 관련된 교육을 최소 90시간 받고,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업무를 최소 1,000시간 수행해야 한다. 반면, 다른 두 경로에는 응시 조건 중 하나로 모두 보건학 교육 14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http://iblce.org/flags/korean/, 조회일: 2014.07.01.)
참고로, 국내 IBCLC들을 중심의 모유수유전문가(LC, Lactation Cosultant)들의 자발적 모임이자, ILCA(International Lactation Consultant Association)의 공식 한국지부인 한국LC협회(KLCA, Korean Lactation Consultant Association)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는 90여개국 총 25,000명, 한국에는 약 1,300명이 인증시험을 통해 IBCLC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격요건으로 "모든 응시자는 건강 과학(health science)의 교육 완료(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모성후원회의 카운슬러, 예를 들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라라체리그 리더가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출처: http://www.klca.co.kr/iblce/iblce_1.php)

말해서, 라레체리그에서 정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리더가 된 이후라 하더라도,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서도 '리더'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라레체리그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이들에게 조직의 철학이 제대로 체화되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조직 생존 자체에 위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차원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레체리그가 성인교육운동이 시장에 종속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강선보 외 역, 2011: 374), 조직의 핵심이 되는 리더 지원자와 기존 리더에게 학습과정을 부여함에 있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3가지를 통해 살펴본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경험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들은 '중구난방'으로 모유수유에 대해 떠들기도 하고, '이구동성'으로 모유수유 권장을 외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전세계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을 돕고 모유수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동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기에게 젖 먹이는 것이 쉽지 않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글로 표현한 어머니들의 목소리들이 그저 개인의 넋두리로 끝나기도 하고 모유수유 권장이라는 단순 구호를 넘어, 전지구적인 NGO를 탄생시킨 조직적 노력으로 승화되기도 한 것이다.

또한, 아이와 함께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젖을 먹이게 된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다. 즉, 어머니 자신과 자신의 아이만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지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길은 달라졌다. 나 혼자 지나간 좁은 산길일 수도 있고, 함께 가면서 보다 넓은 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함께 길을 갈 때도, 어머니들만 갈 수도 있고, 가족과 의료진을 비롯하여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도 있다.

또한, 그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젖을 짤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녀가 '왜'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때 그 문제 자체의 규정이 달라졌다. 전자의 경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화장실이 깨끗하면서 화장실에서 아기에게 줄 도시락을

쌌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내 수유실을 만드는 것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머니와 사회가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양상은 어머니들이 취한 방식, 즉, 단일고리(single-loop) 학습과 이중고리(double-loop) 학습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데 초점을 맞춘 단일고리(single-loop) 학습에서는 '왜 수유실이 없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신들의 철학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고리(double-loop) 학습에서 이러한 의문 제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본원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어머니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이 땅의 아기들이 엄마젖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회적인 노력의 바탕은 바로 이러한 '나'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모유수유는 단지 사회화에 머무르는지 않는다. 또한, 모유수유 경험을 통해 살펴본 어머니의 학습은 "동물적 본능을 가진 생물학적 개체 및 완전한 사회적 결정체로서 사회학적 개체 사이의 틈새를 확보함으로써 끊임없는 자기변화와 사회변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 주는 촉발기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숭희, 2009: 94).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낳은 그녀들은 모유수유라는 행위, 즉, 어머니 자신과 자신의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에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한 풍토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이 과정속에서, '라레체리그'라는 조직이 탄생하였고, 이는 전지구적 NGO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힘의 원천에는 라레체리그 창립자들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들의 학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교육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라레체리그 창립자들의 자신들의 신념과 삶을 통해 검증된 지식을 어머니와 아

기, 의료 전문가에게 알리고 그들도 이를 그 자신의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녀들의 방식은 Michael Polayni가 제시한 과학적 탐구과 많이 닮아있다.

한편, 라레체리그의 존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라레체리그는 서구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성인교육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가치가 기독교였다는 Jarvis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둘째, 평생교육의 관점간의 갈등 중 하나인 개인과 사회의 변화의 관계에 대해, 라레체리그는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증거이다. 라레체리그가 그러했듯이, 가슴(breast)으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뿐 아니라 또 다른 가슴(heart)으로 함께 하는 이들이 전문가에 못지않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한다면 그 희망의 씨앗은 머지않아 푸르게 자라 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경험을 통해 나타난 어머니의 학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개개인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개인적, 집단적, 조직적 차원에서 각각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모유수유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어머니들의 학습을 통시적으로 조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생애사 분석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들의 학습과정을 드러낸다면, 경험을 자기화하는 주체적인 과정으로서의 평생 학습 현상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통해 그녀들의 모유수유 경험을 살펴보았다. 어머니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층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역동적 학습 관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중(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pp. 201-223.

공보람(2008). “기독교 성인교육 참여가 부모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인수, 이수연, 백경선, 양영옥, 이지원, 정향미, 박정희, 신상춘(2006). “모유수유아의 성장발달 상태와 어머니의 양육 경험”. 아동간호학회지, 12(4), pp. 495-505.

권인수, 최소영, 강영실, 양영옥(2008).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pp. 20-27.

김경애(2006). “공동경험 구성과정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경희(2001). “평생교육학의 의미와 관점: 문헌 리뷰”.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김신일・한숭희(편). 서울: 교육과학사.

김미종, 김태임, 권윤정(2010). “성공적 모유수유모들이 경험한 모유수유 지속 장애점 및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분석”. p. 192, 2010년도 아동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2010년 6월 18일. 진주: 경상대학교.

김중진, 박봉수, 권순범(2013). 2014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 청년층 창직 가이드. 한국고용정보원.

김종서, 김신일, 한숭희, 강대중(2009). 평생교육개론. 파주: 교육문화사. 개정판.

김선희(2009). “모유수유하는 여성의 어머니 되어가기 과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3), pp. 186-195.

김신일(2001). “학습 이론과 학습자관의 변화”.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김신일・한숭희(편). 서울: 교육과학사.

김신정, 이정화(1993).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논집, 5, pp.33-65.

김신정, 양숙자(1997). “초산모의 모유수유 경험”. 한국간호과학지, 27(3), pp. 477-488.

김윤미, 박영숙(2004).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pp. 360-367.

김윤미(2006).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완전모유수유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융희(2006). “모유수유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 되어가기'의 심리적 과정-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은실(1996).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pp. 119～147.

김지혜(1995). 모성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거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윤경, 태희원, 장인자(2007). “자녀 사교육을 통한 모성 구성과정: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pp. 55-87.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pp. 35-55.

_____(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1999). “여성의 관점에서 본 초기 모성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 166-182.

박철홍(역)(2002). 아동과 교육과정/경험과 교육. 서울: 문음사, 초판.

변혜정(1992). 임신에서 초기양육까지의 어머니일 수행 경험으로 인한 ‘어머니’로의 적응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백경선, 이수연(2010). “모유수유모의 수유경험에 대한 연구”. 질적연구, 11(2), pp. 69-79.

소경희(2005). 교육과정 개발: 주요 쟁점 및 새로운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제1판.

신경아(1997).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미식(2005). “평생교육의 초기 이념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론으로서 여성주의 교육이론”. 평생교육학연구, 11(2), pp. 93-116.
신현정(2006). “모유수유 체험의 의미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9(2), pp. 89-115.
양병찬, 지희숙, 박혜원(2011). “전업주부의 배움의 방식과 주체형성: 대전 지역의 두 마을도서관 운동 사례 비교”. 평생교육학연구, 17(4), pp. 205-234.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1a).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를 위한 교육지침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서의 의료요원을 위한 20시간 교육과정.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_____(2011b).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 엄마젖을 먹입시다.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_____(2013). 초보엄마들의 좌추우돌 수유기.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윤택림(1996).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pp. 79-117.
이근(2003). “우리 나라 엄마젖 먹이기를 생각한다-라레체 리그 회의에 갔다 와서”. 대한가족계획협회보고서, 36(8), pp. 4-5.
이성진・임진영・여태철・김동일・신종호・김동민・김민성・이윤주(2009). 교육심리학서설. 파주: 교육과학사. 제3판.
임인재, 김신영(2008). 교육·심리·사회 연구를 위한 논문작성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2개정판.
장군자, 김선희, 정경순(2008). "간호사의 모유수유 지지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8(1), pp. 172-179.
정민승(2001). “학습지원시스템으로서의 온라인 원격교육 재구성 전략”.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김신일・한숭희(편). 서울: 교육과학사.
_____(2002). 사이버 공간과 평생학습. 서울: 교육과학사. 제1판.
_____(2010). 성인 학습의 이해. 에피스테메.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한숭희(2006).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제2판.

_____(2001). “평생교육연구의 메타인식: 전개와 방향”.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김신일・한숭희(편). 서울: 교육과학사.

_____(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제3판.

최돈민(2001). “평생학습사회와 대학 구조 변화의 기제”.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김신일・한숭희(편). 서울: 교육과학사.

KBS 공부하는 인간 제작팀(2013).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예담.

Harvard Business Review Staff(1998). *Harvard Business Review On Knowledge Management*. 현재경제연구원(역)(2010). 『지식경영: 조직 내 지적 자산의 창출 및 공유・확대 방안』. 서울 :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제1판.

Betsy Wearing(1984). *The Ideology of Motherhood: A Study of Sydney Suburban Mothers.* Sydney: George Allen & Unwin.

Chris Argyris(1991). "Teaching Smart People How to lear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_____(2007). “Double-Loop Learning In a Classroom Setting". In Michael Reynolds & Russ Vince (Eds.). *The Handbook of Experiential Learning & Management Education.* pp. 21-34.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Chris Everingham(1994). *Motherhood and Modernity: An investigation into the rational dimension of mothering.*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David A. Kolb(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Diane Wiessinger, Diana West, & Teresa Pitman(2010). *The womanly*

art of breastfeeding. Ballantine Books. 8th ed.

Hannah Meara(1976). “La Leche League in the United States: A key to successful breast-feeding in a non-supportive culture”. Journal of Nurse-Midwifery. 21(1). p.20-26.

Jennifer Senior(2014). *All Joy and No Fun : The Paradox of Modern Parenthood.* 이정식(역)(2014). 『부모로 산다는 것』. 서울 : (주) 알에치코리아, 제1판.

Jule DeJager Ward(2000). *La Leche League : At the Crossroads of Medicine, Feminism, and Relig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Kaye Lowman(1978). *The LLLove Story.* Illinois: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_____(2007). *The Revolutionaries Wore Pearls.* Illinois: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Kath Ryan(1997). “The Power of Support Groups: Influence on Infant Feeding Trends in New Zealand”. Journal of Human Lactation, 13(3). p.183-190.

La Leche League of Franklin Park, Inc(1958). *The Womanly Art of Breastfeeding.* Illinois : La Leche League of Franklin Park, Inc, 초판.

La Leche League. 유영난(역)(1986). 『당신 아기의 영양 : 엄마젖이 좋아요』. 서울 : 사단업법인 샘터사, 제1판.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2003). *Leader's Handbook*(4th ed.) Illinois: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M. Kyenkya-Isabirye, R. Magalheas(1990). “The mothers' support group role in the health car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 Obstetrics. 31(1). p.85-90.

Martha McMahon(1995). *Engendering Motherhood: Identity and Self-Transformation in Women's Lives.* New York: Guilford Press.

Mary Ann Cahill(2001). *Seven voices one dream.* La Leche League

Internationl, Inc., 1st ed..

Mary Georgina Boulton(1983). *On Being a Mother: A Study of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London : Tavistock Publications.

Michael Polanyi(1962).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표재명・김봉미(역)(2001). 『개인적 지식』. 서울 : 아카넷. 제1판.

Michael Polanyi & Harry Prosch(1974). 김하자・정승교(역)(1992). 『지적 자유와 의미』. 서울 : (주)범양사 출판부. 제1판.

Nancy Mohrbacher(2010). *Breastfeeding answers made simple: A guide for helping mothers.* Hale Publishing, L.P.

Nonaka Ikujiro.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December 1991.

Peter Javis eds(2001). *Twentieth Century Thinkers in Adult & Continuing Education.* 강선보・노경란・김희선・변정현(역)(2011). 『20세기 성인교육철학』. 서울 : 동문사. 초판.

Freire, Paulo(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30th anniversary ed. 남경태(역)(2012). 『페다고지』. 서울 : 그린비출판사, 제2판.

기타자료

김경애(2001.10.22.). "미 엄마젖먹이기단체 '라레체리그' 탐방기". 『한겨레신문』, <2014.02.14.>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1/10/005100032200110221837111.html

김경애(2001.10.22.). "라레체리그 리더 '로라 아렐라노'". 『한겨레신문』,<2014.02.14.>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1/10/005100032200110221842113.html

김정훈의 불임 및 생식내분비교실, 2013. 5. 31.
<http://www.amc.seoul.kr/blog/main/main.do?blogId=D940019&categoryId=35, 2013.7.1>
이하나(2013. 5. 2). “공동체 커뮤니티 '마이키', “직장맘·전업맘 만나면 마음 통해요””.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57668#.U2L-OmbNvMw,2014.5.2>
이진순(2013. 3. 8). “모성 파괴 바이러스”. 『한겨레신문』, 제12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209.html, 2013. 5. 26>
양선아(2013. 11. 4). “팀장의 '임신 눈총' …직장맘 맞춤 해결사 떴다”. 『한겨레신문』, 제12면. <2014. 5. 2>
라 레체 리그, “La Leche League 홈페이지”, 2013. 5. 31.
<http://www.llli.org./ab.html?m=1,2013.5.31>
유니세프, “Unicef 홈페이지”, 2013. 5. 31.
<http://www.unicef.org/nutrition>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모유수유 체험수기 및 모유사랑 사진전 공모전 안내”, 2013. 6. 13.
<http://admin.unicef.or.kr/unicef/active/kor_view.asp?cPage=11&cidx=23994, 2013.6.13.>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CLE), “Inter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홈페이지”, 2014. 7. 01.
<http://iblce.org/flags/korean/>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2013).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CLE) 시험에 지원하고자하는 응시자를 위한 정보 안내문.
<http://iblce.org/flags/korean/>
한국LC협회, “KLCA(Korean Lactation Consultant Association) 홈페이지”, 2014. 7. 01.
<http://www.klca.co.kr/iblce/iblce_1.php>

Abstract

The study on the breastfeeding mother's experience and learning

Jo, Hye-Jung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breastfeeding mothers' experiences and the meaning of breastfeeding mothers' learning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is study, researcher choose the three cases: mothers' memoirs published by Korean Committee for UNICEF, the online community(Cafe N) and La Leche League. The researcher reviewed the reading materials on the breastfeeding mother experience and La Leche League. And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ontent of texts in mothers' memoirs published by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postings in the online community(Cafe N) forum and responses in questionnaire's completed by La Leche League participants. In addition, as a participation the researcher observed Cafe N and the series meetings of La Leche League in Seoul.

The questions which I raise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breastfeeding mother's experience in an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

(2) What is the implication and the common ground of the breastfeeding mother's learning in an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

(3) In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what is the meaning of the breastfeeding mother's experience and learning in an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

While breastfeeding, a mother learns how to do it simultaneously with her baby. To do this, she needs information and support. To get this, one mother asked another mother who nursed her baby. And in some scenarios, mothers offered information and support to the other mother that she needed. With her baby, she tested the information through personal experience. By doing so, she realized that there is no ready-made knowledge only for her and her baby.

There are some mothers who tried to find their own way so that they could nurse their baby. To do this, one just accepted the situation that she faced and the other made her mind to change it. In other words, one tried to correct the errors without changing the underlying programme(single-loop learning). And the other focused on the underlying programme's errors and tried to change it(double-loop learning).

One mother's experience and learning can change the world just like the founders of the La Leche League. The seven founders of La Leche League made it possible. And they shared their knowledge with medical professionals and mothers. To do this for the medical professionals, La Leche League presented it in a scientific format the providers were familiar with.

Through the experience and learning of limit-situation, their efforts for breastfeeding expanded society and it will make the world more baby-friendly. With the creativity and learning, La Leche League has

made their way.

In the perspective of lifelong learning, La Leche League has the two implications. And this organization has faced the challenge of the market that subsidized the adult education movement. That is to say, it seems like an example that represents the contested terrain of lifelong learning's concepts.

(1) La Leche League was founded on the base of Christian faith and it is the one of the many cases that adult education as a social movement was in the western society.

(2) La Leche League is experiential evidence that one person can make the difference and it leads to the change in society.

Keywords : breastfeeding mother, experience, learning, knowledge, experiential learning, La Leche League

Student Number : 2004-23722